

# 출판N

출판 현장에 대한 오늘의 목소리

---

Vol.8 2020.03

책문화의 현재(Now)와 미래(Next)를 그리는 매체(News)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Network)하는 출판 전문 웹진입니다.

「출판N」은 국내외 출판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 제시와 분석을 통하여 담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출판계의 목소리를 담아 출판시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Contents

## 커버스토리

코로나19 사태 속 출판계, 그리고 이후의 출판계	1
-----------------------------	---

## 정책zoom인

창작자, 출판사, 도서관 그 상생의 고리는 어디 있는가? - 대만의 공공대출권 시범운영과 우리	6
---	---

## 출판가 핫&쿨

《구름빵》 2심 판결, 그 의미와 시사점	12
------------------------	----

## 인사이드

[칼럼] 한국 출판 앱의 주요한 시도와 오늘	16
[서점 다이어리 6] 경험을 공유하다: 동네책방 ‘숨’	22

## 해외리포트 | 해외통신

[독일] 獨,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 배경과 과정, 영향	28
[일본] 일본 출판인들의 걱정거리	35
[중국] 중국 서점들의 지역문화공간화 추세	41

## 해외리포트 | 글로벌마켓

[글로벌마켓 리포트] 미국 뉴욕	47
[글로벌마켓 리포트] 독일	52
[글로벌마켓 리포트] 프랑스	58
[글로벌마켓 리포트] 중국 베이징	63
[글로벌마켓 리포트] 인도네시아	69

## 코로나19 사태 속 출판계, 그리고 이후의 출판계

김기중(서울신문 기자)

2020. 03.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한국을 덮쳤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회 전체가 쫄쫄 얼어붙었다. 서점에 발길이 뜸해지고, 도서관은 끝 모를 휴관에 들어갔다. 출판계에서는 신간을 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소 잠잠해질 때까지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출판·독서계는 어떤 모습일까.

### 서점 판매량 전반적 하락, 여행 서적 '직격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이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입구에 붙은 '이달의 강연회&사인회'를 알리는 보드판에 검은색 안내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었다. 2월 예정했던 고정욱, 전소민, 임희선, 이은희 등 저자 강연과 사인회를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매장 내부로 들어가자 썰렁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코너 대부분에 눈에 띄게 고객이 줄었고, 독서를 위한 의자에는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한 직원은 "평일에도 마감 시간까지 사람이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객이 점차 줄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입구. 2월 예정됐던 저자 강연회와 사인회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는 검은색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점에 발길이 끊겼다. 평일 마감시간까지 고객으로 북적이던 교보문고 광화문점 내부가 2월 25일 오후 다소 한산한 모습이다.

오프라인 책 구매는 줄었지만, 온라인 책 배송, 전자책 구매는 다소 늘어난 게 다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교보문고 측은 “매장 방문객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었고, 지난 설 이후 한 달간 전년 대비 오프라인(바로드림 서비스 포함) 매출은 약 15% 감소했다.”면서 “반면, 전자책 등 온라인 매출은 12%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정은 다른 오프라인 서점 역시 마찬가지다. 영풍문고 측은 “매장 방문

책이 5% 이상 줄었고, 온라인 매출은 1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매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서적 분야별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온라인 서점 예스24 관계자는 “서점가에서 2월은 개학을 앞두고 참고서와 수험서 판매가 늘어나는 시기다. 이쪽 분야 판매량은 개학이 늦춰져도 지난해와 비슷한 판매량을 보였지만, 단행본 판매량은 반대로 크게 줄었다. 인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과학 등 분야도 타격이 크다. 팔릴 책만 팔리고 나머지는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의 줄어든 발길이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여행 서적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봤다. 영풍문고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여행 분야 서적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7%나 감소했다. 판매량이 반 토막 이하로 곤두박질친 셈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500억 원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고, 한국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풍문고 측은 “외국 여행을 갈 때에는 여행 바로 직전에 가장 최신판 서적을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위축되면서 여행 서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행 서적은 방학 기간과 신학기 시작 전 수요가 한창 늘어날 때라 피해가 더 심각하다. 성수기로 꼽히는 2월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 독자와 만남 잇따라 취소… “책 내기도 꺼려져”

출판사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형 출판사들은 최근 출간 기자간담회, 독자와의 만남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취소하거나 계획을 접었다. 미리 준비하던 책은 예정대로 출간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지경이다. 한 대형 출판사 홍보팀은 “3·1절을 앞두고 관련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 이런 분위기라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작은 출판사는 더욱 난감한 지경이다. 책이 안 팔리는 분위기다 보니 아예 새 책 내기를 꺼린다. 출판사 북레시피의 김요안 대표는 “오프라인 쪽 매출이 확 꺾였고,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스트의 클릭 수도 많이 떨어졌다. 사태 이후 책에 관한 관심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출판사는 개학을 맞아 공부법을 다룬 강사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학이 미뤄진 데다가, 이후 홍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그나마 신경 쓴 책이 이런 사태 때문에 묻히게 될까 안타깝다. 개학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작가들도 이번 사태에 발을 구르고 있다. 지난달 시니어 그림책을 출간한 백화현 작가는 이번 달 여러 일정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심해지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기로 한 강연 4개, 지역교육청 11곳의 사서 연수들도 모두 취소됐다. 다수의 지방 강연은 물론, 독자들과 운영 중인 책 모임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백 작가는 “강연은 인세와 함께 작가의 주요 수입원이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작가들로서는 코로나19로 입는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에 첫 인문학 서적을 출간한 모 작가는 “첫 책을 알리려면 여기저기 뛰어야 한다는 이야길 듣고 출판사와 함께 독자와의 만남을 매주 잡아 냈다. 이번 달 초부터 하나둘씩 취소되더니 다음 달 계획까지 모두 없어졌다. 책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해외 도서전 참가를 준비 중인 출판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런던도서전은 취소됐다. 가디언 측은 “지난주부터 아마존이나 대형 출판사 펍컨랜덤하우스 등이 철수를 선언해, 도서전을 강행했어도 행사장은 ‘유령 도시’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4일 열릴 예정이던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이 5월, 오는 30일 개막 예정이었던 이탈리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도 5월 4~7일로 각각 개막을 미뤘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이란 테헤란국제도서전도 6월로 연기됐다.

도서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한창 주가가 오르는 K-문학을 비롯해 외국 진출을 꾀한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이런 여파가 이어질까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주일우 대한출판문화협회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선 4월 중순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상무는 “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는 양서의 판권을 사고파는 ‘B2B’의 역할과 함께, 서점 이외의 장소에서 독자를 만나는 ‘B2C’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면서 “책을 즐기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독서 진흥의 역할에 특히 고려해볼 때 국제도서전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독서 분위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이번 달과 다음 달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신간 제작·출간 일정을 미루는 일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악에는 인쇄소가 휴업에 들어가거나, 미리 제작한 책을 장기간 배분하지 않으면서 출판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서관도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 등 24개 기관을 잠정 휴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립이나 구립 그리고 지방의 작은도서관 등은 그동안 상황에 따라 휴관을 이어왔다. 국립도서관이 휴관한 마당에 버젓이 문을 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평생학습관은 지난 10~16일 잠정 휴관했다가 17일 재개관했다. 그러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24일 국립도서관 휴관에 맞춰 휴관 기관을 ‘별도 공지 시까지’로 변경했다. 그나마 도서 구매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도서관 측은 설명했다. 영등포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는 하지 않지만, 자료선정위원회 선정도서와 이용자 희망도서는 일정에 맞춰 사들이기로 했다. 다만, 신간 출간이 뜸해지고 휴관도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작가들의 소규모 강연 장소로도 활용된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출판계와 연계하면서 우려를 키운다.

## 장기 침체 불가피… “코로나19 이후 고민해야”

눈에 확 띄는 피해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출판·독서계에 미치는 피해는 이처럼 서서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출판·독서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판사들이 책을 내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인가.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 침체에 대비하고, 지금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한번 하락해 버린 출판·독서계가 바로 회복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줄어든 오프라인 책 구매가 모두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집에서 한가하게 책을 보기보다 코로나19 상황 변화가 어떨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수험서나 참고서 판매가 끝나면 온라인 서점의 판매량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판·독서계와 정부가 이번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출판계의 대응은 여전히 종이책 판매에 집중하는 식인데, 대형 서점과 출판사는 타격을 크게 입지 않더라도 동네 작은 서점이나 작은 출판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과감하게 책 구매 예산 등을 선 집행해 도서관이나 각종 기관을 통한 구매를 늘리는 식으로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사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은 “출판과 독서계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이면 해결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지금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좀 더 의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소장은 “책이 지닌 본래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겠다는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그저 뉴스에만 집중하는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다룬 책을 적극적으로 낸다든가, 온라인상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독서 운동을 비롯한 마케팅 등으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 이후 다시 비슷한 사태가 닥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지금의 마케팅 전략에서 탈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독자들의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구독경제 등과 같은 변화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오프라인 서적 구매자는 ‘헤비리더(heavy reader)’가 많고, 헤비리더는 대개 다양한 책을 사는 경향이 있다. 대형 서점들이 지금처럼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매대에 원하는 책을 깔아놓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온라인 서점도 출판사가 비용을 내고 책을 노출하거나 후기 등을 작성해 홍보하는 식의 뻔한 마케팅은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독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구독경제 등을 결합하는 식으로 충성 독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코로나19와 비슷한 사태가 터지면 똑같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

### 김기중(서울신문 기자)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까 싶어 기자가 됐다. 재밌는 기사, 정보가 되는 기사를 쓰려 고군분투 중이다.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이자 출판팀장으로, 출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많다. ‘김기중 기자의 책 골라주는 남자’를 연재 중이다.

# 창작자, 출판사, 도서관 그 상생의 고리는 어디 있는가?

## - 대만의 공공대출권 시범운영과 우리

형소진(대만 내용력주식회사 저작권 에이전트)

2020. 03.

대만 특히 타이베이로 여행으로 방문하는 이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필수 코스가 있다. 바로 24시간 영업으로 이름이 알려진 성품서점(誠品書店)이다. 실제로 성품서점의 모든 지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달이 뜬 심야에도 서점 문을 내리지 않고 새벽이 되도록 독자들에게 개방되는 서점 공간이라니. 매해 타이베이 관광 필수 코스에 성품서점 이름이 빠지지 않는 걸 보니, 그 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환상과 호감은 생각보다 강력한 듯하다. 올해 2월 초에 열릴 예정이었던 '타이베이 도서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 조치로 개최 한 주 전에 5월로 연기되었다. 타이베이 도서전은 올해로 개최 28회를 맞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서전으로, 해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업계 관계자들과 일반 관람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한, 대만을 대표하는 학문의 전당 대만국립대 주변에는, 독립서점을 포함해 수십 개의 서점이 대거 몰려 포진해 있다. 대만대 주변 서점지도를 서점들에서 따로 제작해 배포할 정도이다.





신베이시 중허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만도서관 전경(사진 제공: 韓正誼)

이렇게만 보면, 대만을 엄청난 출판강국으로, 한국과 달리 출판시장이 아주 활황인 것으로, 독서 인구가 줄지 않고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아주 다른 상황이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에 햇수로 6년을 머물면서, 독자로서, 출판저작권 에이전트로서 체감하는 것은, ‘독서 인구가 적다’, ‘서점에 어슬렁거리는 이는 적지 않으나, 책을 들고 계산대까지 가는 이가 무척 적다’, ‘출판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해 연말, 평소 알고 지내는 대만 편집자 동료가 귀와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를 메신저로 보내왔다.

지난 12월 31일 대만 교육부와 문화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줄여서 PLR)’의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대출권은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2016년 기준 35개 국가(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도서관 대출 서비스로 인해 저작물의 판매 수요가 감소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판매의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본 저작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보니, 일전에 어느 작가에게서 들었던 한마디가 머릿속을 교차했다. “작가들은 자기 책이 도서관에서 대여 순위가 높은 거 안 좋아해요.” 책이 팔려야 인세를 받는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이 서점이 아니라 무료로 대출되는 도서관에서 인기가 높은 것이 속이 탈만도 할 것이다. 책이 많이 대출될수록 출판사는 경영이 어려워지고, 덩달아 저자는 인세 받기가 어려워지니, 다음 책을 내는 건 더 요원해지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이리 보면, 마치 창작자와 도서관, 출판사와 도서관이 서로의 이익을 상충하는 대척 지점에 있는 듯 느껴지기까지 한다. 출판산업 저작물을 둘러싼 창작, 편집 및 출간, 판매 및 공급 등으로 일종의 협력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들인데, 어떤 배경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시 공공대출권은 이 상황에 대한 대안적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이 공공대출권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시행이 어려운데, 대만은 시범운영이라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대만의 공공대출권 시범운영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대만 출판산업 연간 매출액은 2013년 616.7억 위안에서 2017년 460.64억 위안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책의 권수는 2011년 5,700만 권에서 2017년 7,656만 권으로 올랐다(대만 매체 <관건평론> 2020년 1월 1일자 기사 참고). 일각에서는, 도서관 책 대여와 책 구매의 상관관계 유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두 수치를 볼 때 적어도 대만 독자들은 점점 책을 사지 않는 대신, 더 많은 책을 대출했다고 볼 수 있겠다. 기자회견에서 대만 교육부 장관 판원중(潘文忠)은 이번 ‘공공대출권’의 시범운영이 목표하는 바를 분명히 밝혔다. “더 많은 민중이 도서관을 찾아 더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더 많은 작가들이 더 양질의 창작물을 내며, 출판업자들은 계속 양서를 출간하고, 도서관의 장서가 다양하고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이번 계획에서, 독자와 작가, 출판사, 도서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고려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문화부 장관 정리쥘(鄭麗君)은 “이번 시범운영은 창작과 출판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관련 정부부처의 관계자들만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관계자, 작가들도 여럿 동석해 이번 시범운영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고 동시에 한 목소리로 지지한 점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대만의 대표적인 출판사 시보문화 이사장 자오정민(趙政岷)은 “비록 시범운영 기간의 보상금이 쥐꼬리 만한 금액에 불과하지만, 창작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 대만의 출판 자유, 창작 자유에 중요한 에너지”라고 지지했고, 아동그림책 작가 차오원옌(曹俊彥)은 “예전 시스템의 모순은 도서관에 책이 많이 대출될수록 출판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지금 공공대출권이 시행되는 것이 아주 이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 대만의 창작 역량이 더 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운영기관은, 국립공공정보도서관(대만 중부 타이중시 위치)과 국립대만도서관(신베이시 위치) 두 곳이다. 이 시범운영을 위해 ‘공공대출권 시범운영 전담팀’도 꾸려졌다. 대만도 시범운영에 앞서, 논의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목소리가 많았다. 그럼에도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국립대만도서관 로비. 시범운영 기간이 이미 한 달이 넘어선 시점이었지만,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공대출권'을 홍보하는 문건이나 공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진 제공: 韓正誼)

공공대출권의 시행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자주 논의되는 문제는, 보상금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와 어느 부처에서 전담 시행할 것인가일 것이다. 이 고민사항에 대해 대만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내놓은 듯이 보인다. 문화부가 전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계획,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맡고, 교육부가 시범운영 단계에서의 행정 업무, 예산 편성과 분배를 맡는다. 교육부가 추산하고 있는 연간 예산규모는 약 1,000만 위안(원화 3억 9,800만 원)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교육부가 마련한 예산으로 추진이 되며, 도서관이 본래 확보하고 있는 서적 구매 예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상을 받는 창작자, 출판사뿐 아니라, 도서관도 이 시범운영에 반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공대출권의 보상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 국내 저작자와 국내 법령에 의거해 등록(등

기)이 되어 있는 법인, 민간단체의 창작물로, 대만에서 출간되어야 하고, ISBN이 있는 종이책이다. 전자책과 번역서는 제외한다. 종이책 시장에서의 전자책 점유율은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하면, 시범운영 후 정식 시행 시에 포함하는 것도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보상금 수여대상은 창작자와 출판사이다. 공공대출권을 시행하는 국가마다, 이 수여대상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다. 수여대상을 출판사 없이, 작가로만 한정하거나, 출판사뿐 아니라 편집자에게까지 수여하는 사례도 관련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국가가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시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작가가 혼자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역자가 30%, 편집자가 20% 가져가도록 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자는 대체 누구인가? 누구까지를 창작자의 범위로 보는가? 책 판권 페이지에 등재된 저자, 그림책의 그림 작가, 편저자, 각색(개작)자, 구술자, 원고 작성자, 인터뷰어, 기록자이다. 정부기관이나 공립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금액은 독자가 도서관에서 한 권을 빌릴 때마다 뉴타이완달러 3위안을 지급하는데, 창작자와 출판사가 7:3으로 분배한다. 보상금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창작자가 2인 이상인 도서의 경우 인당 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분배비율은 출간계약서상의 인세 배분비율과 무관하다. 보상금 하한선은 30위안으로, 하한선에 도달한 기등록 창작자와 출판사에게만 지급한다. 하한선에 도달하지 못한 저작물의 경우, 익년도로 이월해 합산한다. 다만 이 누계는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실효성이 사라진다. 시범운영 기간 안에, 해당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참고로 덴마크의 경우 한 작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대여 횟수에 구간별 차등을 두어 지급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 대여 횟수가 높을수록 구간별 보상금은 낮아지는 식이다. 일각에서, 결국 도서관에서도 대여 순위가 높은 몇 권의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작가에게만 역시 공공대출권으로 인한 보상금도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다시 재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보상 방식을 참고해보면 좋을 듯하다.

자, 그렇다면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연말에 각 권에 대한 대출 수치를 통계 내고, 교육부에서 이듬해 2월 1일 보상자격에 부합하는 도서의 목록 공고를 낸다. 2월과 3월 두 달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판사가 신청하고 4월 한 달 동안은 창작자가 신청한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로 기간을 정해 현장 신청도 받는다. 그리고 5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방식은 대여 횟수를 기준으로 삼고, 대출 연장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만 공공대출권 시범운영에 대한 전모를 살펴봤다. 대만의 전체적인 출판시장이나 독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이 시범운영 계획만 살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밖에서 보기엔 공공대출권 시범운영만으로도,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실제 시범운영을 둘러싸고 출판계나 매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공공대출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존 출판시장(출판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공대출권 시행만으로 건강한 출판·독서 생태환경을 만들기는 요원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공공대출권이 현재 대만 출판계가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령 도서관의 책 구매로 인해 판매상들이 받는 영향을 완화할 방법이

있는지, 도서관의 서적 구매 할인율(현재 40%)이 과도한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공공대출권을 시행해도 되는지, 도서관 도서 구매량을 늘려 장서의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만에 출간된 김영하의 《빛의 제국》은 2월 25일 검색 결과, 신베이스 소재의 10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예약 대기자 수가 적은 곳은 4명, 많은 곳은 6명까지 밀려 있었다.

---

#### 형소진(대만 내용력주식회사 저작권 에이전트)

시사다큐 방송작가를 거쳐, 10년간 웅진지식하우스,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기획편집자로 60여 권의 책을 만들었다. 현재는 하늘의 구름이 빨리 움직이고, 일상(日常)이 아름다운 섬나라 대만에서 석사 공부를 하며 저작권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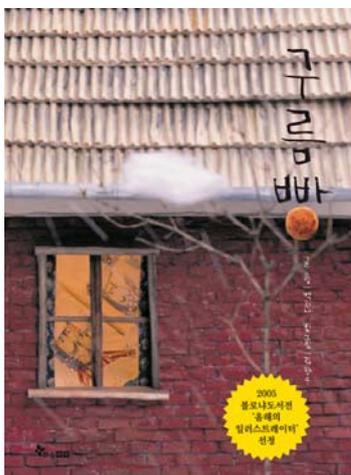
## 《구름빵》 2심 판결, 그 의미와 시사점

김기태(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2020. 03.

### 《구름빵》 소송 개요와 의미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에 이른바 ‘매절(買切)’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번역물일 경우,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한 공동저작물일 경우, 그리고 무명의 작가로부터 원고가 들어왔을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이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과거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희박하던 시절에는 누구나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매절계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는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6.1. 판결, 94카합3724 가처분이의)만 보더라도 매절이 곧 저작권 양도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구름빵》 표지와 본문 일부(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그렇다면 이른바 《구름빵》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작품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계약조건 때문에 제대로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그림동화 《구름빵》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구름빵》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실제로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다양한 형태로 가공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구름빵》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신인 작가였던 탓에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바람에 작가에게 돌아간 수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와 출판사가 책을 출간하기로 하면서 맺은 계약조항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부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작가가 받은 금전은 850만 원에 불과했고 이후 받은 지원금을 모두 포함해도 2,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에서는 작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작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계약을 체결한 2003년 당시 작가가 신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따라서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가는 책의 저작권과 별도로 동화 속 인물에 대한 캐릭터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림책의 경우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캐릭터저작물이 결합한 것인데 앞선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출판사는 이들을 포함한 저작물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구름빵》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설정이 바뀌고 새로운 캐릭터나 배경이 더해져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는 작가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캐릭터나 이야기가 추가된 부분은 이미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 돼 버린 것”이라며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만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형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구름빵》 출판계약을 매절계약이 아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구름빵》 사건이 출판계에 몰고 온 파장은 새로운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4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저작권, 작가 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합의된 출판권설정계약서 등 7종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한 바 있다. 바로 그 배경에 《구름빵》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한 작가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정부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2013년 10월부터 필자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본격적인 연구용역사업이 시작되었다. 여러 차례 공청회와 인터뷰를 거치는 동안 출판 관련 단체를 비롯한 저작권 및 작가 단체 등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는 권장 계약서를 통일하는 한편,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 조성 차원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약 유형을 세분화하여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 출판허락계약서’, ‘독점 출판허락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등 모두 7종으로 구성되었다.

## 저작재산권 양도의 법적 효력과 시사점

앞서 살핀 것처럼 만일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출판계약이 단순한 매절계약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간적 제한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 45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양도(讓渡, assignment)란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일반적인 소유권의 경우 그것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이 각각 별개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는 당연히 이용형태에 따라 권리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자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 복제하느냐에 따라 같은 복제권이라도 완전한 별개의 권리로 쪼개질 수 있다는 가분적인 특성이 저작재산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배타적 발행권을 발휘하여 또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송방식에 의한 ‘전자책(e-Book)’을 만들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한 재산권의 분할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편소설의 저작자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은 물론 각색하여 공연에 이용하거나 영상 제작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각각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한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분할 및 양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원래의 권리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번역에 의해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그것을 ‘한국 내에서만’ 또는 ‘미국 내에서만’ 하는 식으로 제한해서 양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역이 바뀔 때마다 각각 별개의 권리가 작용할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을 때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한 전부를 양도한다.”는 권리자의 명백한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고 양도하는 사람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 ‘저작재산권자의 장래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은 대개가 저작재산권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는 측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소설가가 한 순간의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동안 써 놓은 어떤 작품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 상당액의 금전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소설가는 앞뒤 가릴 겨를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저작재산권 전부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로 소설가는 그 작품에 대한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상황에서의 계약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는 계약임을 잘 알고 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면 여기서의 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추정’이란 언제든지 확실한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되는 양도임을 특약으로 분명히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체의 재산적 권리’라는 표현만으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름빵》의 출판계약은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계약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 계약서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보도에 등장하는 것처럼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표현이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작가 측에서 상고를 했다고 하니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당사자끼리 합의에 따라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일한 입증 자료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에 입각한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 김기태(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삼성출판사, 지학사, 삼진기획 등에서 출판편집자로 일하다가 2001년부터 세명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작권 및 연구윤리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주로 맡고 있으며, 한국전자출판학회 명예회장과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칼럼]  
한국 출판 앱의 주요한 시도와 오늘

---

조한열(북잼 대표)

2020. 03.

2009년 11월 28일,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첫 출시되었다. 2007년 6월 아이폰이 미국에서 공식 출시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물론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란 물건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블랙베리로 유명한 리서치 인 모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꾸준히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아이폰의 등장과 엄청난 성공은 단순한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가 아닌 모바일 시대라는 비가역적인 시대 변화를 몰고 왔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 등장한 스마트폰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10년, 세상은 모바일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이는 혁신적인 속성과 함께 기존 산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파괴적인 속성을 함께 지닌 무서운 변화였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몸의 일부가 되었으며, 외부를 인식하는 제7의 감각기관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단순 도구 이상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인터넷이 보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PC를 구매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은 원시시대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안, 출판 산업 역시 그 파도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출판이란 것이 독자들에게 정보와 지식, 감정과 영감을 텍스트의 형태로 전달하는 산업이라 정의했을 때, 스마트폰을 텍스트 전달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인식한다면 스마트폰의 돌풍은 출판 산업의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출판 산업은 이런 인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이미 지난 수백 년간 출판 산업이 텍스트 전달의 매체로 종이 묶음 형태의 책을 고수해오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출판 산업에서의 텍스트 전달 매체를 종이책으로 한정하는 순간,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는 출판 산업이 활용할 도구가 아닌,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스마트폰 시대가 출판 산업에서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 알 수 없는 양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출판 산업과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는 확실한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은 채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는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출판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전자책은 이제 보편적으로 출판 산업 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책을 기존 종이책의 단순한 디지털 변환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독자들에게 지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자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출판 산업 내에서 전자책의 출판은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것만은 확실하다. 이는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의 대형 서점들과 리디북스와 같은 전자책 전문 서점 등이 전자책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온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야심차게 전자책 서비스를 론칭했던 KT나 신세계 등의 대기업들이 전자책 시장의 더딘 성장에 두 손을 들고 철수하는 동안에도, 서점들만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위즈점하우스 '북릿'



북이십일 '카드북'

일부 출판사들은 서점들을 통한 전자책 제공에 만족하지 않고, 서점이라는 유통 체인의 매개 없이 직접 독자와 연결하겠다는 D2C(Direct to Consumer)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가 가능한 이유는 물리적인 유통이 필요 없는 디지털 유통의 속성 때문이었다. 더구나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만들어놓은 앱 마켓을 통해 직접 독자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출판사의 서비스(앱)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D2C 서비스는 출판사들에게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대형 방송사의 유통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배포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출판사들 중에서 자본력이 있는 곳은 좀 더 과감한 시도를 진행하였다. 짧은 지식 콘텐츠를 광고와 결합하여 무료로 제공하고자 했던 위즈덤하우스의 '북릿' 서비스나 카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했던 북이십일의 '카드북' 서비스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기 상어로 유명한 '핑크퐁' 서비스도 처음에는 삼성출판사의 D2C 서비스로 시작되었다. 삼성출판사의 인기 아동 도서 콘텐츠를 이용하여 300개가 넘는 앱을 제작한 것이 현재의 '핑크퐁' 서비스로 발전한 것이다.

물론 출판사가 자체 D2C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출판사 자체 앱을 통한 서비스 사업은 자본력이 충분한 출판사에서만 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초기 비용을 받지 않고 수익세어 방식으로 출판사들과 협업하는 앱 개발사들이 등장함으로써 출판사들이 큰 부담 없이 D2C 서비스 앱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박경리의 《토지》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완서 전집, 조정래 전집 등의 대형 작가나 작품이 앱으로 출시되었다. 열린책들 세계문학 전집이나 살림지식총서, 문학동네 시인선 등의 시리즈 역시 출판사가 앱을 통해 직접 독자들을 연결하려는 D2C 서비스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출판사의 D2C 서비스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스마트스터디의 '핑크퐁'처럼 도서라는 형태를 벗어나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로 발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 자체만의 서비스로서는 성장의 한계를 보였다. 특히 헤비한 도서 구매자들은 일부 도서만 서비스되는 개별 앱을 통해 전자책을 구매하기보다는 서점의 종합 앱을 통해 전자책을 구매하고 관리하기를 원했다. 게다가 1인당 한 달 평균 30개 이상의 앱을 다운로드하던 시절이 끝나고 6개월 동안 1~2개의 앱을 다운로드하는 환경으로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 출판사의 소규모 앱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서비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책을 제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량이 출판사들에게 요구되었다는 점도 D2C 서비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리의 《토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완서 전집, 조정래 전집 앱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 어려움은 전자책 시장이 장르물 위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전자책 독자 중 상당수가 장르물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종이책 독자들의 전자책으로의 이동은 더디기만 했다. 출판사들이 D2C 서비스를 통해 직접 만나고자 했던 독자들은 기존 종이책 독자였으나, 실제 종이책 독자들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했기 때문에 플랫폼 측면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지금은 장르 콘텐츠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카카오페이지 역시 초기에는 기존 출판 시장의 주류 영역이었던 자기계발, 경제, 경영, 문학, 취미, 실용 등의 영역에 도전했다가 참패하고 다시 서비스를 개편하여 장르물 위주로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나서야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전자책을 종이책의 단순한 디지털 변환이 아닌 새로운 매체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중에서 쉽게 눈에 띄는 시도는 멀티미디어와의 결합이다. 이런 경향은 주로 취미나 여행, 어학 등의 실용서에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종이책 매체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 앱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책과 함께 CD 등의 부가 매체로 제공되던 정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책의 내용과 통합되어 제공됨으로써 독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예로 OPIc 수험서에 말하기/듣기 기능이 결합된 크레듀 오픽 시리즈 앱을 들 수 있으며, 종이책과 함께 제공된 이 앱을 통해 수험 공부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매체를 만들려는 주요한 시도의 한 축에는 오디오북이 있다. 오디오북만큼은 기존 종이책 독자들에게도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독자들이 출퇴근이나 운전할 때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특히 종이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디오북은 읽기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예상만큼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오디오북 도서 종수의 부족함에 있다. 우선 오디오북은 제작 단가가 매우 높다.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비용에 비한다면 약 30배 이상의 높은 단가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예측이 되지 않는 오디오북을 출판사들이 직접 제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간 오디오북을 찾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큼 충분한 오디오북 종수의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2018년 네이버가 오디오북 서비스의 대명사였던 오디오언을 인수한 이후, 아직까지 크게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서 소구되는 오디오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외에 밀리의서재나 월라 등의 서비스 업체 역시 오디오북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기존 서점 등에서도 꾸준히 오디오북 제작에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어느 순간 오디오북 시장이 폭발하는 임계점이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도는 도서 서브스크립션(정액제) 서비스다. 독자들은 상당히 원하는 서비스이면서도 출판사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서비스가 바로 정액제 서비스다. 교보문고 SAM 서비스를 시작으로 밀리의서재 등의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 시장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 뒤 리디북스와 예스24 역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출판사로서는 이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음반 시장에서 콘텐츠 제공자들이 어떤 지위로 격하되었는지 목격한 터라, 도서 시장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 자본력을 앞세워 출판사들에게 콘텐츠 비용을 보전하면서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할 만큼의 유료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판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현재 도서 시장의 비용구조를 놓고 볼 때, 매우 큰 투자금액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으리라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10여 년간 출판 앱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러 교훈과 시사점을 남긴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질문은 다양한 출판 앱을 통한 독자와의 직접 만남이라는 시도가 여전히 유의미하느냐는 점이다. 앱은 디지털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콘텐츠를 앱이라는 컨테이너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매력도가 차이 난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펍수 콘텐츠 앱을 만든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앱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비용보다 사람들이 앱을 발견하고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 비용이 앱을 통한 수익을 훨씬 상회한다면 앱이라는 컨테이너는 결코 매력적일 수 없다. 앱이라는 컨테이너의 발견과 설치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출판 산업에서의 앱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

#### 조한열(북잼 대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개발자 출신으로서 2010년부터 출판 관련 앱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2011년 북잼을 창업한 이후 주요 출판사들과 함께 도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서점 다이어리 6]  
경험을 공유하다: 동네책방 '숨'

이진숙(동네책방 '숨' 대표)

2020. 03.

동네책방 '숨'은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영혼을 돌보는  
우리 동네 작은 책방입니다.



## 경험을 공유하다, 동네책방 ‘숨’

광주의 한 동네에서 작은 동네책방 ‘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무 예뻐요.’ ‘나도 꼭 이런 책방을 운영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면 부끄러우면서도 으쓱해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은 잘돼요? 요즘 책 잘 안 팔릴 텐데...’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알면서도 매번 들을 때마다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어느 자영업이 맘 편히 대박 매출을 올리겠으며, 서점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양 산업이고 변화가 요원하다는 것도 뻔한 현실이니까요. 더군다나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처럼 확실한 편리와 이득이 보장되는 곳이 있으니, 독자들에게 정가에 책을 구매하며 작은 규모의 동네책방을 이용해 달라는 것이 경쟁력을 갖지 않고 도와달라고만 하는 투정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속상하기도 합니다.

시골벽적인 먹자골목 한 어귀에 생동맞게 서 있는 우리 책방을 보고 사람들은 아직도 ‘카페냐, 서점이나’ 하며 뭐하는 곳인지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날마다 변함없이 연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 밝지도 않은 간판을 켜두고는 누군가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책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방문자의 얼굴빛을 살피고 그가 반가워할 만한 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가운 책을 발견한 책방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며 혼자라면 좌절되었을 꿈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힘겨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고 잠깐이라도 꿈꾸던 순간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마을 사랑방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책 읽는 문화

2010년, ‘숨’을 처음 열 때 마을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고 싶어 ‘책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혹은 혼자서 아니면 친구와 함께 마실 다니며 들르는 동네책방-도서관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자립 운영을 위해 나름 수익을 담당해줄 북카페를 한쪽에 열었고요. 사람들이 따로 또 같이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 가장 큰 매개는 역시 ‘책’이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면서 숨겨진 보물과 같은 책을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갈수록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방문한 이들은 꼭혀 있는 책을 살피다 같은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건네웁니다.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고 ‘숨’의 성격이 더 분명해지기도 하지요. 방문했던 한 독자는 작가인 친구의 책을 발견하고는 ‘네 책, 여기 있다.’고 바로 전화를 걸기도 하고, 꽤 나이 지긋한 여사님은 평소 읽던 책이 ‘덕후’들이나 보는 거라며 통박을 들었는데 여기서 그 애장 도서를 발견했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라 관심이 갔다며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시리즈의 신간을 발견하고는 ‘언제 나왔지?’ 하며 즐거워하는 등, 책을 좋아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 보였지만 책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수다쟁이이더군요. 문화기획 사업을 하는 작지만 젊은 한 회사에서는 ‘직원 복지’로 직원 모두 한 달에 한번 이상 책방에 와서 구경하고 책도 사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갑니다.

서점을 시작하고 나서 도서관은 열람과 특별 활동을 위한 장소이자 책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쉼의 공간이 되어 갔고, 서점은 서점대로 커피를 마시면서 책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히 오가는 공간으로서 활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 년에 10여 차례 이상 작가님들을 초대해 북토크를 하고 수많은 독서 모임을 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모임들이 책방을 거점으로 모이기도 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작당하기 위해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마을 살이를 하면서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일은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흐름을 만들어 가는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본래의 내 경험을 넘어서 모두의 경험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겠지요. 개인적인 활동인 책 읽기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책방’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책을 판매한다’는 기본적인 영업 활동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싶어서입니다. ‘동네책방’에서 취급하는 ‘책’은 단순한 판매 물품 이상의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가치와 효용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봉준호 감독이 시상 소감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했지요. 동네책방에서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가장 작고 개인적인 동네책방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네책방 ‘숨’이 처음 시작할 때 즈음, 광주 지역에서 하나둘 작은 동네(독립)책방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2020년)은 15개 정도의 개성 있는 책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SNS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공유하는 20~30대의 한 트렌드 영향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뉴트로 열풍과 이어져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서를 사려는 이들 외에도, 책 자체를 만나기 위해, 책방이라는 공간이 좋아서, 특별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종이책을 비롯한 아날로그 문화가 신기한 옛 추억거리로 소환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책이 더 이상 ‘만 몇 천 원짜리 상품’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책을 고르기 위해 서점지기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받을 사람을 떠올리며 책을 정하고 선물로 전달하고, 받아서 설레는 맘으로 풀어보고, 책을 읽으며 보낸 이의 맘을 헤아리는, 그 일상의 문화가 책을 경험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단지 몇 번의 클릭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과정과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서를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이 아닌 문화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매개로 취향을 확인하고, 친구를 사귀고,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작 활동에 대해 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알아가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공유하며 지역 문화를 이어가는 일까지, 요즈음의 책방은 그 역할과 의미가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작은 동네책방 하나 운영하면서 포부도, 생각도 너무 거창한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이 담겨 있고, 작은 일상의 사랑이 실천되며, 독특한 저마다의 이야기가 들리고 전달되는 곳이었던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성하고 사람다웠으면 좋겠고, 책으로 그것을 실현해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바랍니다.

## ‘책 미리내’로 전하는 마음

동네책방 ‘숨’에 오면 특별히 눈에 띄는 진열대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고개를 몇 번 가웃하다가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대개는 ‘책 미리내’라고 적힌 작은 안내문을 말합니다. ‘책 미리내’는 말 그대로 책값을 미리 내고 구입한 책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을 골라 계산을 한 뒤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은 쪽지에 적어두면, 책방지기가 리본으로 간단히 포장해서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둡니다. 얼마 후 선물을 받을 분이 방문해서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을 선물로 받아갑니다. 그럴 때면 모두들 약간은 쑥스러운 듯 그러나 무척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시곤 하지요.

‘책 미리내’의 시작은 세월호 희생 아이들을 추모하는 생일시 모임집 <<엄마. 나야.>>(난다)부터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아이들 생일이면 생일상이 차려지고 그 아이를 기억하곤 이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희생자 아이가 직접 적은 듯한 시 편지가 읽힙니다. <<엄마. 나야.>>는 2015년 12월 중

순에 발간되었는데,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주시민상주’로서 활동하는 한 분이 이 책을 지인들에게 선물 하겠다며 미리 계산을 하고 책방에 맡겨두었고 그것이 ‘책 미리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책방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의미 있는 책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모두였던 것이지요. 예쁜 빨간 책에 리본을 묶고 책 일부를 인용한 쪽지 글을 적어 끼워두었다가 해당하는 지인이 찾아오면 전달해드렸습니다. 책을 받으러 온 분 중에는 다른 책을 구입해 그분을 위해, 또는 다른 친구를 위해 맡겨두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본인이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님께서 전 \*\*님께 선물하셨습니다.”라는 쪽지 글을 적어 놓아두었는데, 얼마 뒤 받을 분이 다른 일로 방문했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고는 무척 즐거워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렸고 그 뒤로 또 몇 번의 ‘책 미리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 책방 한 쪽에는 리본 달린 예쁜 책들이 몇 권씩 늘 놓여 있습니다. 마치 책들로 이루어진 은하수같이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 참 아름다운 이들이 많구나 싶습니다.

‘책 미리내’로 맡긴 책을 선물로 준비하다 보면, 책을 받을 분이 누구인지, 언제 오실지 궁금해지고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방문한 손님이 ‘여기 뭘 맡겨 놔다던데요.’라며 들어서면 마치 나를 찾아온 손님인 듯 반갑지요. 책을 찾아 전달하면서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짓는 지 살피게 되고, 그 책을 맡길 때 어떤 정황이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기도 합니다. 책방지기가 직접 선물하는 책은 아니지만 맡겨두신 분의 마음이 되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책들은 주고받은 분들의 말이나 행동과 함께 기억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 영혼을 돌보는 책방

동네책방 ‘숨’은 책이 있는 쉼터다. 책을 사거나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고 책이 있는 방에서 조용히 하루 밤 보내기... 삶에 지친 사람들이 원하는, 딱 그만큼의 휴식을 줄 뿐 의무도 없고 구속도 하지 않는다. 책 속 문장이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건 오직 방문자의 몫이다. (동네책방 ‘숨’에서 북스테이를 경험한 방문자의 글 중에서)

책, 이제 종이책은 한물 간 옛것이라고 말하지만 꼭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고민과 삶, 여러 분야의 연구와 상상한 것들이 담긴 ‘책’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과 경험이 다른 만큼 책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공감하게 하는 물증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물질이 주인이 되고 편리와 이득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진

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책’은 더욱 존재해야 하고 그 책을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책방’ 역시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동네’가 사라지고 ‘단지’만 남는 시대가 온다 해도, 나는 여전히 ‘동네책방’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마다 삶의 이야기가 책의 어느 구절, 어느 문장을 통해 공명하며 영혼을 흔드는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그래도 된다고 서로 안심하며 계속 그 길을 나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장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사회의 여러 면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바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고 싶습니다. 겨우 작은 동네책방 하나 운영하는 것이지만, 교회 옆 오두막에서 평생 종치기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처럼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가슴을 치는 종소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매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동네책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국 80여 개 동네책방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네책방’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단행본 도서를 주로 취급하는 작은 서점입니다. 여기서 ‘작은’의 의미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 자본과 물질만능의 사회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천천히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

#### 이진숙(동네책방 ‘숨’ 대표)

광주광역시 수완동에 자리한 동네책방 ‘숨’은 도서관과 서점 카페로 이루어진 마을 사랑방입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의 회원 책방으로 지역의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신/독일]

## 獨,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 배경과 과정, 영향

장성준(언론학박사, 자유기고가, 독일 라이프치히 거주)

2020. 03.

### 시작하며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은 같은 매체일까 비슷한 매체일까. 아니면 아예 다른 매체일까? 이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전자출판물을 이미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예정인 인쇄출판물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PDF, E-Pub, 온라인 페이지 및 아카이브)으로 인코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두 매체는 동일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매체 또는 형식만 다른 유사매체가 된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방식(유형↔무형), 소비방식(직접소비↔중개(디바이스)소비), 구매방식(온/오프라인↔온라인)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콘텐츠 제공형태나 거래방식 등을 기준으로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구분하는 경우엔 두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종매체로 구분된다.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학계와 산업계를 통틀어 폭 넓게 이뤄져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 획정, 규제 또는 진흥 등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Gleicher Steuersatz für gleichen Text



Kulturstaatsministerin Grütters.  
BILDRECHTE: DPA

Bislang liegt der Mehrwertsteuersatz für E-Books, E-Papers und E-Zeitschriften noch bei 19 Prozent. Kulturstaatsministerin Monika Grütters sagte, Bücher, Zeitungen und Zeitschriften seien steuerlich gleich zu behandeln - "unabhängig davon, ob sie auf Papier oder in elektronischer Form erscheinen".

Eine vielfältige Presselandschaft sei für eine freie und unabhängige Meinungsbildung unverzichtbar - ganz gleich, ob die Inhalte online oder gedruckt vermittelt würden. Zudem erschöpfe sich der kulturelle Wert eines Buchs nicht in seiner gedruckten Form, sagte die CDU-Politikerin.

연방문화미디어부 특임장관 모니카 그뤼터(CDU/기독교사회당)의 언급이 소개된 뉴스. 그녀는 2014년 인쇄도서와 동일하게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MDR(<https://www.mdr.de/nachrichten/politik/inland/e-book-mehrwertsteuer-100.html>)

최근 독일에서는 전자출판물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총리실 산하 연방문화미디어부의 특임장관(무임소 장관직) 모니카 그윈터는 '인쇄나 전자형식 등과 같은 표시방식과 상관없이 세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언급,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을 환영했다. 즉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이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과 활용 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매체로서 기능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평가는 이전까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왔었던 것에 기인한다.

### 전자출판물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입장

2012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와 룩셈부르크가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국에서 결정한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을 전자책에 적용하는 것을 강행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유럽연합의 세금 체계에 있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는 일반 물건이나 일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소 15%,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최소 5%의 경감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조세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준에 따라 도서와 신문, 잡지 등의 인쇄출판물은 특정 가치를 가진 재화로 분류되어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준은 부재했기에 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집행위원회는 인쇄출판물에 대해서는 문화재나 문화향유재로서 기능한다고 평가했지만, 전자출판물은 이와 관련 없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의 법적 지위가 나뉘게 되었고, 법적 지위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로 구체화되었다. 2012년 기준 유럽연합회원국의 인쇄출판물에 대한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약 5.5%에 불과했던 반면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반 소비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약 19.0%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의 요구와 무관하게 프랑스는 전자출판물 중 전자책의 부가가치세를 5.5%, 룩셈부르크는 3%로 낮추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13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두 국가의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재판이 시작된 후 약 2년이 지난 2015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자책이 부가가치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명시된 원고승소판결의 근거 역시 전자출판물, 특히 문제가 된 전자책은 문화향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었다.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지만 유럽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그중에서도 인쇄도서와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에 관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몇 해 지나지 않아 다른 방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유럽연합 자체에서 조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2월 유럽집행위원회의 조세총국은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결정을

위한 자율성 강화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 중에서 디지털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 정책에 대한 개정 작업이 수반되었고, 자연스럽게 전자책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논의의 결과는 2018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유럽연합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여한 경제 및 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연합회원국이 전자출판물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최소 비율 기준은 기존의 15%에서 인쇄도서 및 언론(자체 저널리즘 원칙과 편집 원칙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출판물 등과 마찬가지로 5%로 낮아졌다.

### 독일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 도입 과정

유럽연합의 이러한 합의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회원국들에서 호평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독일연방재무장관 올라프 솔츠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독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소식에 신문발행인협회와 (전문)잡지발행인협회 등 관련 업계는 다양한 디지털언론(저널리즘)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논평했다. 독일서적상협회에서도 전자책은 (인쇄도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발생하는 차액이 전자책을 개발하는 데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회는 독일 내 출판사와 서점, 유통사들로 구성되어 출판 분야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평가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연방하원의원인 폴커 카우더가 2010년부터 전자출판물, 특히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사안이 검토되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31일 독일연방내각이 발표한 조세법 개정초안에 포함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전까지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인쇄출판물(언론, 저널리즘 등)에는 7%, 전자출판물에는 19%의 부가가치세를 책정해왔다. 조세법 개정초안은 전자출판물에 대해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독일서적상협회, 신문발행인협회와 (전문)잡지발행인협회, 서점협회, 도서관협회 및 미디어교육협회 등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예상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도 없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자출판물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독일연방내각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전통적인 서적이거나 신문, 잡지 등의 기능을 넘어 서거나 물질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전자출판물'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순수 온라인언론(신문과 잡지 등)과 순수-전자책, 전자출판물-데이터서비스 등은 경감 세율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인쇄출판물과 이를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출판물을 동시에 발행하는 출판사나 신문사, 잡지사들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고, 웹사이트와 스마트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업자 등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서 간주한 결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 Bundesrat gibt grünes Licht

Nach der Verabschiedung durch den Bundestag hat das Jahressteuergesetz auch den Bundesrat passiert. Er macht damit den Weg frei für eine ermäßigte Mehrwertbesteuerung auf E-Books, E-Paper und die Bereitstellung eines Zugangs zu Datenbanken, die eine Vielzahl digitaler Publikationen enthalten.

drucken teilen E-Mail



© succo - pixabay

연방하원과 상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29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Börsenblatt

([https://www.boersenblatt.net/2019-11-29-artikel-bundesrat\\_gibt\\_gruenes\\_licht-ermaessigter\\_mehwertsteuersatz\\_fuer\\_e-books\\_kann\\_kommen.1770110.html](https://www.boersenblatt.net/2019-11-29-artikel-bundesrat_gibt_gruenes_licht-ermaessigter_mehwertsteuersatz_fuer_e-books_kann_kommen.1770110.html))

연방내각이 공개한 조세법 개정초안은 발표 후 6개월의 조정을 거쳐 연방하원에 의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의 보완 및 수정을 위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연방 차원에서 조세법 개정초안의 내용이 유럽연합에서 2018년 결정한 조세 기준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11월 7일 (전문)잡지발행인협회는 연방내각이 데이터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 내용이 포함된 조세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8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다. 이후 11월 29일에는 연방상원이 연간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최종발효를 앞두고 된다. 개정 조세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적용,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바로 시작되었다.

##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개정된 조세법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조세법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19%의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15유로의 전자출판물을 구매 또는 구독한다면 이 중 12.61유로가 순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이고 2.39유로가 부가가치세로서 지불되는 식이었다. 개정된 조세법이 적용되면서 7%의 부가가치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순수 제품 비용인 12.61유로의 7%에 해당하는 0.88유로

가 부가가치세가 되어 결론적으로 세금이 1.51유로 낮아진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이 20유로인 소비자가 전자출판물을 구매 또는 구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3.19유로에서 1.18유로, 25유로의 상품일 경우 3.99유로에서 1.47유로로 낮아져 각각 2유로와 2.52유로의 세금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최종 소비자가격 5유로 당 약 0.50유로의 차액이 발생하는 격이다. 이렇게 세금 감면이 시행되면서 독일 출판계에서는 차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는 산업이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시행된다. 세금을 낮추면서 최종 소비자가격도 낮추게 하거나 감면된 세금을 투자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독일의 전자출판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은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최종 소비자가격이 내릴 것을 기대하고 반대로 기업(생산자)의 입장에서선 차액만큼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출판 관련 웹사이트 'Literaturcafe.de'에선 전자출판물 중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독자와 저자, 출판사/서점 등 세 행위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선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가 전자책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요구되었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하가 주는 독자에게 주는 이점은 인쇄도서를 구매했을 경우에 동일 서적을 전자책으로 이용하도록 연계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 두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쇄도서와 전자책의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불가능했다. 이미 'Kein & Aber', 'Haffmans & Tolkemitt' 등과 같은 독일의 몇몇 출판사들은 전자책의 이용권한을 인쇄도서에 부속시키는 실험을 행했었는데, 당시 인쇄도서와 전자책이 동일 상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 차이가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부가가치세 비율 통합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이러한 서비스들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저작권료 수익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서선 수익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전자책의 최종 가격은 유통업체(플랫폼)와 출판사 간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허용 가능한 할인율, 세금 등을 포함하여 책정되는데 이때 산정된 가격을 기초로 저자와 출판사의 인세 계약이 체결되므로 인하된 부가가치세를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고자 할 경우 명확한 계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소매업체들에선 저자와 출판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인쇄도서와 전자책을 동일한 세율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정관리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맺으며

독일에서도 전자책은 이미 인쇄도서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한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가격 할인이므로 유통사 또는 출판사들이 도서 가격을 낮추는 것과 부가가치세 인하는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전자책 가격을 인하하려 들어도 이 또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아 자유로운 할인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독일서적상협회가 도서정가제 기준을 검토했던 것과 2016년 도서정가제 규정이 개정되었던 것이 근거로 작용한다.



독일 2019년 여가활동 조사 중 '여가활동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전자책 읽기는 82%의 응답으로 5위에 랭크되었다.

출처: Freizeit-Monitor (<http://www.freizeitmonitor.de/>)

일련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독일 출판 시장의 특성상 전자책판매에 있어 가격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에게 선택적 이점으로 작용했다면 독일의 전자책 시장이 진작 성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독일인들에게 전자책 읽기란 여가시간 동안 절대 하지 않을 행동 5위에 꼽힐 정도로 외면받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출판물은 그 형태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럽연합이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의 세금을 차등 적용했던 것은 이들을 이종매체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조세법 개정초안 중 예외 조항에 관한 내용은 전자출판물을 인쇄출판물의 부수적 형태, 즉 유사 매체로 판단한 결과 나온 것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작되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회원국들에서 촉발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인하 논란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간 관계 규정과 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이제 독일에서 전자출판물은 인쇄출판물과 조세법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출판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전자출판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상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독일 출판 산업의 관련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

**장성준(언론학박사, 자유기고가, 독일 라이프치히 거주)**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 현재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자 라이프치히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독일의 출판정책과 미디어정책과 관련하여 국내기관에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셜 미디어와 사회참여』, 『다문화사회에서의 미디어역할(공저)』가 있고 국내에서 출판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외통신/일본]  
일본 출판인들의 걱정거리

---

김승복(쿠온출판사 대표)

2020. 03.

필자는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의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기관들의 주요 출판인들이 만났다. 큰 출판사를 운영하는 분들로, 대를 이어 출판사를 이끌어 가는 분들도 많았다. 필자는 통역자 입장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일본서적협회 두 기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이야기 중 한국 출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사실은 좀 우울하기도 한) 일본 출판계 정보를 전한다. (본 글을 위해 이날 발제를 한 소학관 대표의 허락을 받았음도 함께 밝힌다.)



좋아서 하는 일이 더 좋아지면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일본에서 출판을 하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의 여러 출판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다. 출판을 즐기면서 하는 분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만난다. 작은 출판사도 많은데, 그 출판사의 대표이거나,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책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만들고 싶은 책이 있어서 출판사를 차린 분들이어서 다들 에너지가 총만하다. 처음 만나도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다. 이들 중에는 3년차가 가장 많고, 길면 10여 년 남짓한 시간을 출판계라는 혹성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로, 출판력이 그리 길지 않은 사람들이다.

작은 출판사를 이끌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점은 출판이 잘 나가던 시절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책이란 것이 마구마구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니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원하는 이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만드는 습관이 몸에 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책방 지기들과도 사이가 좋다. 정성들여 만든 책을 또 한 권, 한 권 정성 들여 판매하는 책방지기야말로 든든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책방지기들도 책방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이들이 많아, 책방지기들과 '우리'는 이 궁리 저 궁리를 함께하는 '나까마(=동지)'이기도 하다.

책방지기들과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리한 전개를 해야 할 국면이 별로 없다. 살림 규모가 크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한다는 압박이, 순한 정성을 눌러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욕심들이 없다. 최선을 다해 만들고 정성 들여 책을 판다. 만나서 한 권, 한 권 책 만드는 이야기, 한 권, 한 권 책 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신난다.

필자는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터라, 한국이나 일본의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재미있는 책들을 사 입하여 팔고 있어 이 작은 출판사들과도 친하다. 또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에 일본 각 지역 동네책방에 책을 판매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 이 순둥이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100% 실화이다.

이런 순둥이들과 주로 교류하다가, 지난 연말 한일 출판계의 공룡들이 모인 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같은 출판계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차원의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주로 규모가 있는 출판인들의 걱정거리이다. 이 걱정거리들은 그리 멀리 않은 시간에 한국을 찾아갈 것이다. 다음은 소학관 대표가 한국 출판인들에게 발제한 내용 중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추린 것이다.

## 1. 출판유통 비용이 만만치 않다

출판물 배분 부수가 점점 줄고 있어 한 서점으로 가는 운송량이 압도적으로 줄었다. 운송회사로서도 이전에 비해 단가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방식 개혁관련법이 운수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장시간 노동 상한 제한과 유급휴가 소화가 의무화된 것이다. 직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일 자체가 중노동이라 젊은 층 유입이 원만치 않다. 그래서 트럭 운전자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또 법률 개편으로 최저 임금도 올려줘야 해서 운수업계가 대 패닉에 빠진 상태다.

일본 출판운송은 잡지와 서적을 동시에 배송하는데 그 물량 비율이 잡지가 7할, 서적이 3할이다. 그러니까 잡지가 운송비용을 거의 부담해온 터인데 그 잡지 물량이 줄어 상대적으로 서적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이 많아진 셈이다. 한 번에 신고 나가는 물량이 줄어 운송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출판사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책의 정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책은 '박리다매'가 일반적이었는데 운송비용 면을 생각하니 언제까지 박리다매만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잡지와 코믹(만화)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독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므로 가격인상 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해결 방안은 그래서 모두의 현안이기도 하다. 일본잡지협회와 일본출판도리츠기(유통)협회 역시 검토를 시작하였다. 나 자신은 잡지협회의 부이사장이기도 하며 소학관 대표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운송비 문제는 2020년 출판계의 현안으로 책정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급격한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출판사들을 도와가며 눈앞의 이익만이 아닌, 그렇다고 관습에 묶이지도 않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운송비용이 책 정가의 몇 %인가?”라는 한국 측 질문에 “정가의 10%에 육박한다.”는 답변이었다. 한국 출판인들은 현재 한국에서 이 문제는 현안이 아니지만 머잖아 대면하게 될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코멘트를 하였다.)

## 2. 점점 어려워지는 서점 경영

일본 서적에는 슬립(SLIP)이라는 얇은 책갈피 같은 종이책이 책 사이에 꽂혀 있다. 이것은 서점을 위한 장치인데 책이 팔리면 이 슬립을 빼서 재고관리, 주문관리를 하는 데 쓰인다. 하루 마감을 하면서 이 슬립을 정리하는 일은 점원에게 중요한 업무이다. 팔린 책이므로 주문을 넣어야 한다. 포스레지(POS)를 사용하지 않는 서점, 특히 작은 서점에서는 없어선 안 될 장치이기도 하다.



재고관리와 주문관리 용도로 쓰이는 슬립

그런데 요즘 슬립을 제작하지 않는 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시장이 점점 전산화되어 가기 때문에 출판사가 일부러 비용을 들여가며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는 슬립이 없는 책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전자화폐 장려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카드 및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돼가고 있다. 영세한 서점들에 대한 경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점상업조합연합회는 서점재생지원재단의 지원을 통해 서점이 포스레지(POS) 도입을 원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거론한 운송비 증가는 서점에게도 실제적인 타격이다. 반품할 때는 서점 측이 운송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3. 출판사 폐업과 도산이 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025년에 일본 기업 3분의 1에 해당하는 127만 개의 회사가 폐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후계자 문제, 금융 문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출판사의 경우, 도산보다는 폐업이 많다. 현재 출판사 사장들은 단카이 세대에 큰 뜻을 세워 출판사를 창업한 분들이 많은데 이들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사업 승계 세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 승계로 인한 증여세, 상속세를 전액 유예하는 등 기업 존속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내고, 시험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폐업 신고를 하는 출판사들이 줄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상 3가지가 일본 출판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다. 운송비 인상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조만간 한국 출판계에서도 대두될 문제라고 한다. 이날 참석한 일본 출판계 인사들은 대부분 2대째 사업을 물려받은 60대 이상의 대표들이 많았다는 점도 부기한다.

### 다시 순둥이들의 이야기로!



2020 후타고다마가와 책방 잔치 포스터

2020년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도쿄 후타고다마가와역 앞 광장에서는, 일본 전국에 산재한 독특한 동네책방들이 모인 책방 잔치가 벌어졌다. 40개 책방이 오밀조밀 모여 손님을 맞이하였다. 필자의 책방 '책거리'도 출점하였다. 1월 31일은 올 겨울 중 가장 바람이 차고 추운 날이었으나 어찌나 많은 사람이 책을 사러 왔는지, 그날이 가장 추웠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2020 책방잔치- 이틀 동안 3만 3,000명이 참가

실행위원회(초타야서점 직원들)는 출점한 전 책방을 미리 취재하고, '책방의 가야할 길'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담들을 실은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당일에 각 책방들이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장 한 편에서는 연일 쉬지 않고 다양한 토크 이벤트와 콘서트가 이루어졌다. 이틀간 책방 잔치를 찾은 사람은 무려 3만 3,000명이었다. 전국의 유명 책방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책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방들을 한군데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요즘엔 한국에도 이러한 추세가 생겨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책방 순례는 경외할 만하다. 신칸센, 비행기, 야간 버스를 타고 좋아하는 책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출점자들이 '나까마'를 한 자리에서 만나 서로가 애정하는 책들을 사고파는 풍경 또한 자연스러웠다. (주최 측에서는 혼자 출점한 책방지기들에게 1시간 정도 출점 책방을 봐주는 따뜻한 서비스를 해주었다.)

손님과 책방지기들은 이런 책방 잔치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한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다들 큰 욕심 없이 진정으로 책을 읽고 책을 권하고 책을 즐기는 친구들이 모인 잔치였다. 업계 전체를 두고 고민하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순둥이들이 이처럼 마음껏 지금을 즐기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사이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또한 출판계만의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작은 출판사, 작은 책방, 큰 출판사, 큰 서점 할 것 없이 이왕에 하는 일, 책이 안 팔리고 책을 안 읽는다며 출판계 불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는 것보다 모두가 즐거운 시장을 만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사고팔았으면 한다.



책방 잔치 출점자와 관계자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 김승복(쿠온출판사 대표)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현대시 전공. 1991년 도일(渡日). 니혼대학(日本大学) 문예과 졸업. 2007년 출판사 '쿠온'을 도쿄(東京)에서 설립. 사무소 이전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칸다 진보초에 한국어 원서 책, 한국 관련 책 전문 북카페 'CHEKCCORI(책거리)'를 오픈했다. 현재 쿠온 출판사를 통해 한국 문화와 문학 관련 도서들을 출판하며, 책거리 북카페에서는 연 120회 이상의 한국 문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통신/중국]  
중국 서점들의 지역 문화공간화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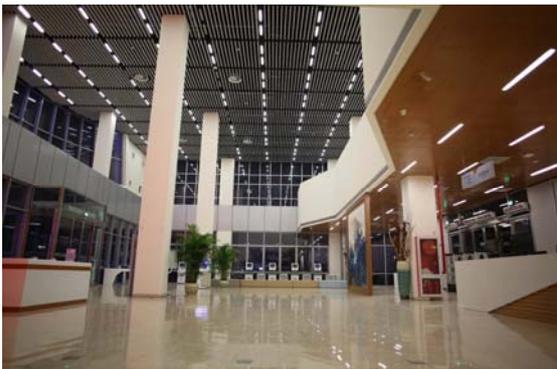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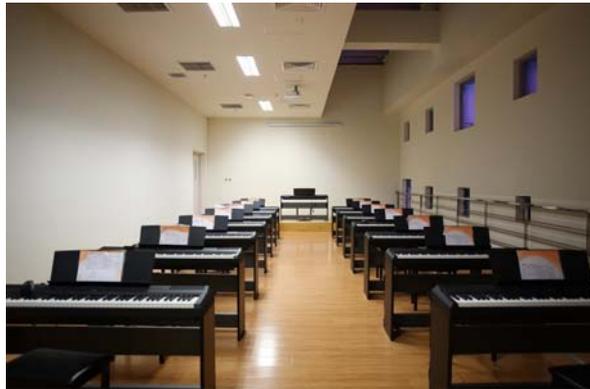
김택규(숭실대 중어중문과 겸임교수)

2020. 03.

2019년 4월 개장한 베이징시 팡산구(房山區) 문화활동센터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중국 지역 공공문화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 문화 당국은 기존 지역 문화 시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지역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점에 주목하여,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문화 시설을 한곳에 모은 지역별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팡산구 문화활동센터 역시 팡산구 도서관을 기초로 도서관인 A동과 문화관인 B동, 두 구역으로 건립되어 도서관, 공연장, 시민 아카데미 등의 기능을 모두 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8층으로 이뤄진 도서관은 성인열람실, 아동열람실, 유아열람실, 전자책제작실, 24시간 무인열람실 등으로 나뉘며 이용자는 베이징 공공도서관 연합 독자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고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5층으로 이뤄진 문화관에서는 무용, 요가, 미술, 악기 등 14가지 취미 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소극장, 헬스클럽, 문예창작실, 민간예술 보호실, 노인대학 등도 설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팡산구 문화활동센터의 최고 수혜자이자 애용자는 역시 아이들이다. 평상시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손을 잡고 센터를 방문해 열람실에서 책을 보고 과학, 미술 등의 체험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도 연중무휴인 24시간 무인열람실에서 독서와 학습에 집중한다. 그들에게는 '제2의 집'이나 다름없는 이 센터는 그야말로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중국의 여러 도시가 바로 이런 효과에 주목해 팡산구 문화활동센터와 유사한 지역 문화공간의 조성을 앞다퉈 기획하고 있다.



팡산구 문화활동센터 A동 로비와 도서대여실

그런데 지역 문화공간의 조성이라는 이 추세는 단지 공공문화 서비스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 분야에서도 몇몇 선도적인 프랜차이즈 서점이 이를 차세대 서점의 콘셉트로 잡고 수익모델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미 베이징에서만 5곳의 신개념 매장을 운영 중인 경두서사(更讀書社)이다. 사실 팡산구 문화활동센터의 24시간 무인열람실도 현재 이 경두서사가 정부의 투자를 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

다. 자체 개발한 트랙픽 감측시스템 ‘레이투스원(雷圖智雲)’을 이용해 24시간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 경두서사의 사업 모델은 ‘경두스마트시티책방’과 ‘경두문화여가공간’,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여러 공공도서관에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24시간 무인열람실의 위탁 운영은 그중 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두서사의 주력 분야는 역시 순수 상업 모델인 ‘경두문화여가공간’으로 이를 실현한 것이 바로 베이징의 대형 상가 5곳에 입점한 매장들이다.



경두서사 로고

그 매장들의 특성에 관해 경두서사의 마케팅 담당자 청화(程華)는 “우리 경두는 스스로를 서점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두서사의 가장 큰 기능이 단지 도서를 상품으로 보고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쾌적한 독서의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책을 판매 대상으로만 보면 서점은 마트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경두의 영혼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문화적 감성과 체험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경두서사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도서 판매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선 경두서사는 편안한 분위기의 도서관이고자 한다. 전체 내부 디자인은 밝고 단순하며 원목 색깔의 책꽂이와 책상, 의자를 비치했고 매장별로 1만 권이 넘는 대량의 장서도 갖췄다. 상가 안을 오래 돌아다니느라 지친 사람들이 잠깐 둘러 쉬면서 책을 펼치고 싶은 분위기를 연출해놓았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중국의 다른 독립서점들처럼 간단한 식음료도 판매하므로 책을 읽다가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문구, 다기 등의 문화 상품도 전시하여 수시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아울러 도서 구입과 대여를 비롯한 모든 매장 내 소비는 충전이 가능한 회원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회원 등록 후 100위안의 보증금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역시 키오스크로 도서 검색과 대여를 할 수 있으며 매장 내 모든 소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매장에서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 강좌와 이벤트에 대한 참가 우선권도 주어진다.

경두서사는 폭넓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문화 강좌와 이벤트 기획에도 공을 들인다. 보편적인 저자 사인회와 간담회 외에 따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 와인 시음회, 다예와 꽃꽂이 강좌 등의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이밖에 독서 퀴즈대회나 도서 바자회 등을 열어 이용자 간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베이징 동청구 경두서사

‘중국 최초의 상가 내 도서관’임을 선전하는 경두서사의 이런 실험은 공공도서관 내 무인열람실 위탁 운영과 함께 그들이 ‘지역 문화공간화’를 미래 서점의 생존 모델로 예견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서점은 단순히 불특정 소비자를 겨냥한 책의 판매점이 아니라,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전달하고 또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복합서비스 현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두서사보다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지역 문화공간화의 목적은 훨씬 더 뚜렷한 예로 단상공간(單向空間) 항저우 러디강(樂堤港) 분점의 ‘단상 청소년클럽’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립 15년이 지난, 베이징의 대표적인 독립서점 체인 단상공간의 첫 비(非)베이징 분점인 러디강 분점은 2018년 말에 문을 열었고 작년 말, 3층의 80제곱미터 면적을 청소년 전용 공간인 단상 청소년클럽으로 개조했다. 자습실, 도서열람실, 휴게실로 나뉜 이곳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으로서 단상공간의 장기적인 사업 전망을 보여준다.



단상공간 항저우 리더강 분점

단상 청소년클럽 역시 경두서사처럼 회원제를 채택해, 기본회원으로 등록하면 자습실과 도서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고 매장 내 5만여 권의 도서를 무제한으로 빌려 볼 수 있으며 개인별 도서추천 서비스와 독서능력 평가 그리고 '청소년 점원 체험 프로그램' 참여권 등도 받을 수 있다. 이 서점의 점장 쩌우둥린(鄒棟林)의 말에 따르면 사실 청소년클럽의 소비자이자 진정한 수요자는 가장들이며 그들의 소비는 꽤 주기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말하길, "우리는 청소년클럽을 수익모델로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를 더 중시하면서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서비스를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단상 청소년클럽은 청소년 전문 아카데미의 운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금년에 연극 수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야외 캠프 등의 기타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라고 한다. 단상공간은 이런 노력을 통해 각 매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그들의 가장이 갖고 있는 문화적 수요를 정확히 가늠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지역사회와 더 밀착된 서점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서점 업계는 서점의 발전을 위한 키워드를 서비스와 콘텐츠로 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왔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서점 본연의 기능에 편집숍, 식음료점, 호텔 등을 결합한 다원적 서비스 모델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콘텐츠도 상당히 다채로워졌다. 하지만 페이지원, 시시포(西西弗), 중수거(鐘書閣) 등 대규모 자본을 유치한 새로운 서점 체인들은 대부분 대형 상가나 시내 중심에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차별없이 유치하는 데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두서사와 단상공간은 또 하나의 키워드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별, 연령별 특정 고객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그들의 문화적 수요를 특정해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도서관 모델', '회원제 모델'을 실험하는, 지역 문화공간화의 추세를 연출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실험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도 만약 그들의 매장이 실제로 지역의 필수 불가결한 문화공간으로 뿌리내린다면 이는 미래 서점의 한 긍정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

#### **김택규(송실대 중어중문과 겸임교수)**

1971년 인천 출생. 중국 현대문학 박사. 송실대학교 중문과 겸임교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국 저작권 수출 분야 자문위원. 출판 번역과 기획에 종사하며 송실대학교 대학원과 상상마당 아카데미에서 중국어 출판 번역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번역가 되는 법(유유)>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중톈 중국사(글항아리)>, <죽은 불 다시 살아나(삼인)>, <암호해독자(글항아리)> 등 50여 종이 있다.

글로벌마켓 리포트

미국 뉴욕

안성학(KPIPA 수출 코디네이터)

2020. 03.

2020년 1월 도서 판매량은 2019년 1월보다 약 5%의 증가세를 보였다. 픽션 부문에서는 지난 커민스(Jeanine Cummins)의 《American Dirt》와 들리아 오언스(Delia Owens)의 《Crawdads Sing》이 순위를 이끌었다.

논픽션 부문에서는 풀리처상 수상자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기자 캐롤 리닉(Carol Leonnig)과 백악관 국장 필립 러커(Philip Rucker)가 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통령직에 대한 내부 리포트 《A Very Stable Genius》가 화제를 끌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링 리포터 피터 슈바이저(Peter Schweizer)의 《Profiles in Corruption》이 출간 즉시 순위에 올랐다.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의 《The Mamba Mentality》도 순위에 올랐다.

아동 부문에서는 데이브 필키(Dav Pilkey)의 《Fetch-22 (Dog Man # 8)》와 제프 키니(Jeff Kinney)의 Wimpy Kid 시리즈인 《Wrecking Bal》이 순위에 올랐다.

아마존 순위는 종이책과 이북, 오디오북, 월정액 구독 서비스인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를 모두 포함하는 관계로 구독 서비스의 도서들이 상위 10위 안에 상당수 들어 있다.

〈미국 주간 도서 판매량〉

	1월 26일 - 2월 1일	1월 19일 - 1월 25일	1월 12일 - 1월 18일	1월 5일 - 1월 11일
2020	11,911,000	12,232,000	12,509,000	13,629,000
2019	11,284,000	11,325,000	12,140,000	13,298,000
상승율	5.6%	8.0%	3.0%	2.5%

자료 출처: Publisher Weekly, NPD

〈종이책 판매 순위〉

연번	1월 26일 - 2월 1일	1월 19일 - 1월 25일	1월 12일 - 1월 18일	1월 5일 - 1월 11일
1	A Very Stable Genius	A Very Stable Genius	Leadership Strategy and Tactics	Where the Crawdads Sing
2	Profiles in Corruption	American Dirt	Fetch-22 (Dog Man #8)	Fetch-22 (Dog Man #8)
3	American Dirt	Profiles in Corruption	Where the Crawdads Sing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
4	Fetch-22 (Dog Man #8)	Fetch-22 (Dog Man #8)	Lost	Moral Compass
5	Where the Crawdads Sing	Where the Crawdads Sing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	Wrecking Ball (Diary of Wimpy Kid #14)
6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	The Conference of the Birds (Miss Peregrine's #5)	Dear Edward
7	Vendetta Road	Lost	Wrecking Ball (Diary of Wimpy Kid #14)	You Were Born for This
8	Get Out of Your Head	Wrecking Ball (Diary of Wimpy Kid #14)	Grumpy Monkey	FGTeeV Presents: Into the Game!
9	Wrecking Ball (Diary of Wimpy Kid #14)	Grumpy Monkey	Eat What You Love: Restaurant Favorites	Grumpy Monkey
10	Grumpy Monkey	Leadership Strategy and Tactics	Just Mercy	The Defined Dish

자료 출처: Publisher Weekly, NPD

〈아마존 통합 판매 순위 - 픽션〉

	1월 26일 - 2월 1일	1월 19일 - 1월 25일	1월 12일 - 1월 18일	1월 5일 - 1월 11일
1	American Dirt	Where the Crawdads Sing	Where the Crawdads Sing	The Last Wish (The Witcher)
2	Where the Crawdads Sing	The Last Wish (The Witcher)	The Last Wish (The Witcher)	Where the Crawdads Sing
3	The Last Wish (The Witcher)	The Silent Patient	The Guardians	The Martian
4	The Silent Patient	The Dutch House	The Silent Patient	The Guardians
5	The Giver of Stars	The Giver of Stars	Blood of Elves	Such a Fun Age
6	<i>Thief River Falls*</i>	<i>The Last Sister*</i>	The Giver of Stars	<i>Little Women*</i>
7	The Dutch House	The Guardians	The Dutch House	The Silent Patient
8	<i>The Last Sister*</i>	<i>Last Day*</i>	<i>Unspeakable Things*</i>	The Dutch House
9	<i>In the Heart of the Fire*</i>	<i>Thief River Falls*</i>	<i>Last Day*</i>	The Giver of Stars
10	<i>Last Day*</i>	<i>Unspeakable Things*</i>	Dear Edward	<i>Regretting You*</i>

자료 출처: Amazon

이탤릭체 도서 \*: Kindle Unlimited 구독 서비스 도서

### 〈아마존 통합 판매 순위 - 논픽션〉

연번	1월 26일 - 2월 1일	1월 19일 - 1월 25일	1월 12일 - 1월 18일	1월 5일 - 1월 11일
1	A Very Stable Genius	A Very Stable Genius	Talking to Strangers	<b>Atomic Habits</b>
2	Profiles in Corruption	Talking to Strangers	<i>If You tell*</i>	<i>If You tell*</i>
3	Talking to Strangers	Leadership Strategy and Tactics	<b>Atomic Habits</b>	The Minimalist Way
4	<i>If You tell*</i>	<i>If You tell*</i>	<b>Educated</b>	<b>Educated</b>
5	<b>Atomic Habits</b>	<b>Atomic Habits</b>	<b>Unfu*k Yourself</b>	<b>Unfu*k Yourself</b>
6	<b>Educated</b>	<b>Educated</b>	<b>Becoming</b>	Maybe You Should Talk to Someone
7	The Mamba Mentality	Never Split the Difference	Maybe You Should Talk to Someone	The Defined Dish
8	Never Split the Difference	<b>Unfu*k Yourself</b>	Just Mercy	The Daily Stoic
9	<b>Unfu*k Yourself</b>	<i>Payoff*</i>	Can't Hurt Me	Can't Hurt Me
10	<b>Becoming</b>	<b>Becoming</b>	Awkward	Girl, Stop Apologizing

자료 출처: Amazon

*이텔릭체 도서* \*: Kindle Unlimited 구독 서비스 도서

## 이달의 출판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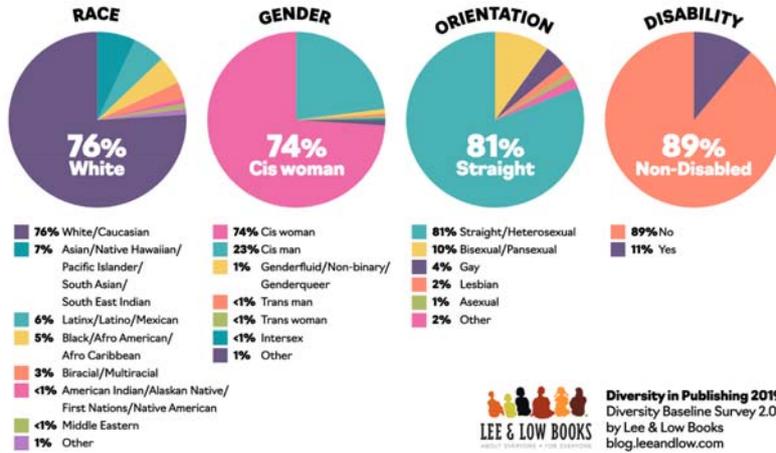
### 여전히 백인 위주인 미국 출판 업계

미국 뉴욕 소재 리앤로 북스(Lee&Low Books)가 지난해 출판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중 76%가 자신이 백인이라고 응답했다. 이 출판사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79%가 백인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4년간 백인 응답자 수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3%의 백인 감소가 실제로 비백인의 3% 증가로 이어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 출판계에서 불고 있는 아시아계 작가들과 남미 작가들의 출판러시에 비하면 여전히 미국 출판업계는 백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진 구성에서는 2015년도 조사 때 86%에서, 78%로 백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 대형 출판사에서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와 남미계 출판인들이 경영진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출판업계에 장애인 비중(11%)이 다른 업계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디자인과 편집 등 출판 관련 업무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 Industry Overall



## 오디오북과 이북의 경계는 무엇인가? 오더블의 새로운 시도, 캡션(Captions)

세계 최대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북 회사이며 아마존의 자회사인 오더블(Audible)은 지난 7월 캡션(Captions)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2년 아마존이 소개한 '위스퍼싱크 포 보이스(Whispersync for Voice)'의 바탕이 된 오더블의 '이머전 리딩(Immersion Reading)'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이다.

아마존의 '위스퍼싱크 포 보이스'는 오더블의 오디오북과 킨들의 이북을 싱크시키는 기술로, 독자가 오디오북과 이북을 오가며 자유자재로 전환해 읽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TV, 영화, 게임, SNS 등 너무나 다양한 오락 수단으로 인해 실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지금, 독자들이 눈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SNS를 할 수 없는 시간에 잠을 내 독서를 하게 해주는 오디오북은 출판 시장의 새로운 독서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 때는 이북을 읽다가도 운전이나 운동을 하면서 책을 계속 읽고 싶으면 오디오북이 현재 읽던 부분을 자동으로 인지해 계속 이어서 읽어준다. 이런 까닭에 이북과 오디오북을 하나의 통합된 책으로 연결해주는 이 상품을 이용하는 독자들은 항상 책을 접하게 되어 오디오북이나 이북을 따로 이용하는 독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더블의 '이머전 리딩'은 필자가 오더블에 근무 시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상품화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독자들은 오디오북을 들으며 이북을 읽을 수 있다. 이때 현재 오디오북이 읽는 부분이 이북에 하이라이트로 나타나 글을 따라가며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오더블은 이 기술을 활용해 TV나 영화에서 음성을 캡션으로 보여주거나, 음악 앱에서 노래가 나올 때 그 부분의 노래 가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오디오의 내용을 캡션의 형태로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미 많은 이북리더가 텍스트를 오디오로 전환해주는 TTS(Test to Speech) 기술을 활용해 이북을 오디오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도는 그 반대의 형태인 것이다.

오더블의 이 시도에 미국의 빅5 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마침내 1월에 오더블은 미국 출판사 협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회원사들의 도서를 사전 허락 없이 캡션(Captions)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합의했다.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중국·동남아시아 4개 권역, 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들이 현지 출판시장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 글로벌마켓 리포트

# 독일

---

박소진(KPIPA 수출 코디네이터)

2020. 03.

독일 출판계도 2020년 새해를 긍정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지 못했다. 출판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이 감소하였고, 독일 출판업 매거진인 뵘어센블랏(Borsenblatt)을 탈퇴하는 출판사들이 증가하였다. 일부 전자책은 상당히 낮은 가격, 즉 4유로 미만, 한화로 약 5,3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출판사들의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본 보고서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 정보는 독일 최대 온오프라인 서점 체인 ‘탈리아(Thalia)’와 ‘후겐두벨(Hugendubel)’을 참고하였다.

## 신간 동향

### 하루, 100여 권의 신간 출간

신간은 하루에 100여 권 안팎으로 출간된다. 주요 신간 분야는 크게 1. 범죄 소설 및 일반 소설 2. 정신 및 신체 건강에 관한 실용서 3. 아동서 4. 출산, 가정, 연애 관련 서적으로 나뉜다. 상기 분야는 신간 목록에서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시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뿐만 아니라 신간 목록 모두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언어권, 관점을 다루는 도서들이 부족하다. 극히 보수적인 독일 사회에서 외서는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으며, 타 문화 및 언어권의 번역은 (여전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화된 소설들과 더 나은 학교 성적을 위한 도서들이 별도의 카테고리를 통해 소개되었다. 부활절과 새 학기가 가까워지는 시기인 만큼, 이와 관련된 신간들과 유아 및 아동 그리기 도서가 다수 출간되었다. 더불어, 슬레비히 홀스타인 주의 애완견 관련법, 경영 조직법 등 다양한 주제별로 법 조항을 묶은 신간들도 눈에 띄며, 고객과의 디지털 관계나 국제 거래 시의 영수증 처리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실용서 및 비즈니스서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출간되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화가들이나 작가들의 작품집, 바우하우스와 같은, 기존에도 다수 출간된 주제를 다루는 도서들만이 주요 신간 목록에 올랐다. 한편, <아이 엠 셉록>과 <드래곤볼 수퍼 8>과 같은 일본 망가도 목록에 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 망가 마니아층이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용 분야에서는 《해리 포터 - 마법의 뜨개질(Harry Potter - Knitting Magic. The official Guide to creating magical knits)》이 출간되었으며, 찾았이나 씨앗 등 비도서 물품도 책 카테고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독일어권, 즉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의 선두자 격 서점인 탈리아(Thalia)의 신간 목록 30권의 카테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2020년 2월 15일자)

1	정치 사회 (외국인들과의 사회적 통합)
2	그림책 (자연, 동물, 노래)
3	그림책 (빨간 모자 동화를 새로이 해석함. 아동 자기 개발.)
4	아동, 교양 (다람쥐 관찰)
5	비즈니스 (디지털 고객 관리법)
6	건강 (요가, 명상)
7	사회 과학, 역사 (발명가들을 그림으로 소개함)
8	역사 (전염병의 세계사)
9	역사 (우주 비행 역사, 그림으로 설명)
10	건강 (요가)
11	역사 (우주 비행사들을 그림으로 이해)
12	미술 (수수께끼를 담은 그림들을 통해 보는 미술사)
13	요리 (타이 요리)
14	역사 (역사에 이름을 남긴 학자들을 만화로 소개함)
15	종교, 영성
16	요리 (비건)
17	사진 (사진집, 터키)
18	예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
19	문학 (라틴어 문학 연구가)
20	소설 (고양이)
21	실용 (결혼식 일기장)
22	실용 (자녀, 양육)
23	실용 (실화, 예루살렘)
24	아동 (초등학교 입학용 선물 도서)
25	실용 (경력, 조직 및 계획력)
26	외국 도서 (영미권, 짐바브웨 역사)
27	아동 (축구의 역사)
28	아동 (포니에 관한 역사)
29	유아 (유아 놀이 안내서)
30	유아 (그림책, 다람쥐)

## 고향

중앙 집권이 아닌 연방제 구조의 독일은 각 주가 자치권을 가짐에 따라 지역색이 강하고, 다양한 사투리와 표준 독일어의 차이가 뚜렷하며, 지역적 자부심과 그에 따른 타 지역 배척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 구조 및 문화를 비추어 보여주는 탈리아 온라인 서점의 '고향' 카테고리에서는 각 지역의 토종 음식, 독일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는 범죄 사건들을 다루는 인기 TV 범죄물 시리즈인 '범죄 현장 Tatort'의 소설 및 DVD, 유명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각 도시 버전, 여러 도시 지도를 삽화로 그려 놓은 캔버스백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인플루언서의 신간

독일 인플루언서의 신간 또한 별도 카테고리로 홍보되고 있다. 19세 여성으로, 라이프스타일 분야 인플루언서인 '루스카날(Looskanal)'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는 《실수 제로 세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여성 듀오 '빅토리아 사리나(Viktoria Sarina)'가 일기장 형식으로 말(horse)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전하는 《내 사랑 말》, 또한 결혼부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팀 해리슨(Team Harrison)'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가족의 목표(Familygoals)》와 자신의 운동 비법 및 요리 레시피를 담은 '안겔리나 헤거(Angelina Heger)'의 《너의 몸, 너의 결정》이 팬들을 위해 출간되었다.

## 베스트셀러 동향

### 탈리아 베스트 100권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 20권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련서, 범죄 소설, 아동서가 차지하였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100권 중 번역서 비중은 41%로, 그중 78%가 영미권 도서이며, 나머지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망가이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및 영미권 도서 카테고리가 별도로 베스트셀러 분야에 있을 정도로 독일에서의 수입 도서는 영미권에 (극히) 치중되어 있으며, 영미권 번역 소설은 도서 가격이 약간 낮은 편이다. 한편, 홀로코스트 기념일(1월 27일)과 관련된 신간 출간, 독서 행사, 다큐멘터리, 영화 방영이 잦다.

다음은 탈리아의 베스트셀러 목록 20권의 카테고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2020년 2월 15일자, 1위부터 낮은 순위로 나열)

1	아동서
2	시
3	자기계발 (카르마)
4	범죄 소설 (시리즈)
5	판타지 소설 (넷플릭스 시리즈 The Witcher, 영미권 번역서)
6	자기계발 (긍정성 찾기, 유아기 때의 어머니와의 관계)
7	정치 (실질적인 유토피아적 정책 실업수당, 적은 근무 시간) [슈피겔(Spiegel) 베스트셀러]
8	자기계발 (옥스포드 대학교 anti 스트레스 프로그램, 영미권 번역서)
9	건강 (설탕)
10	범죄 소설 (지역, 베를린)
11	범죄 소설 (지역, 미대륙, 영미권 번역서, 가격 4유로)
12	범죄 소설 (지역, 영국, 영미권 번역서) [슈피겔 베스트셀러]
13	연애 소설 (영미권 번역서)
14	소설 (영미권 번역서)
15	판타지 소설 (넷플릭스 시리즈 The Witcher)
16	유아 그림책
17	정치 역사 (홀로코스트, 60유로)
18	요리책 (비건)
19	건강 (식습관)
20	청소년 (역사, 나치)

## 후견두벨 베스트 30권(2020년 2월 17일)

탈리아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다른 부분 중 주목할 만한 도서들을 소개한다.

### 인문

《언어와 존재》는 독일 저널리스트 큐브라 규뮤제(Kübra Gümüşay)의 첫 출간작으로 언어의 힘, 즉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네 자신이 돼라(Sei du selbst)》는 이 문장을 주제로 한 철학 사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밀의 연결(Das Geheime Band)》은 ‘우리의 일곱 가지 감각과 연결된 자연도 과연 의식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분홍색을 입지 않아(Feminists don't wear pink and other lies)》는 청소년서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여성에게 의미하는 바를 전한다.

### 소설

‘노르웨이 출판상’ 수상작 《벌들의 이야기》는 1852년의 영국, 2007년의 오하이오, 2098년의 중국 벌bee을 과거, 현재,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연결한다. 여성의 성(생활)을 주제로 한 소설 《세 여자》

가 슈피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영미권 번역서), 한 남자를 만난 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작가 드로르 미샤니의 소설 《셋》과 최근 100년의 독일 역사와 독특한 사랑 이야기를 한 가족을 통해 전하는 《사과 나무》가 슈피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 실용

스티븐 킹의 마지막 저서인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에드워드 스노든의 《영원한 기록》, 반 민주주의적인 트럼프와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아우슈비츠를 주제로 한 영미서 《아우슈비츠에서 아버지를 따라간 소년(Der Junge, der seinem Vater nach Auschwitz folgte)》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자책

한편 스릴러, 범죄 소설이 전자책 베스트셀러 목록의 70%를 차지하며, 30%는 일반 소설이 차지하였다.

### 외국 번역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외국 도서 부문의 베스트셀러는 거의 영미권 도서이다. 기타 지역의 소설로는 영국에서 이민자 후손으로 살아온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커 상(the Booker Prize) 수상작 《소녀, 여성, 타자(Girl, Women, Other)》, 이완 맥이완의 《바퀴벌레》, 콜롬비아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멜바 에스코바(Melba Escobar)의 범죄 소설 《미용사(La casa de la belleza)》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과 사담 후세인 간에 벌어진 일을 담은, 이란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아흐메드 사다위(Ahmed Saadawi)의 소설 《바그다드에 간 프랑켄슈타인》은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 라이프치히 도서전 수상 후보작

※ 라이프치히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 라이프치히도서전'의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본 리포트는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월 12일부터 열리는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도서상 후보작들을 소개한다.

### 소설

《미들 마치》는 남성 이름의 가명으로 글을 쓰는 메리 앤 에반스의 소설로, 19세기 영국의 한 지방 도시와 그 거주민들의 기이함을 묘사한 소설이다(영미권 번역서). 《올바른 살인자들》은 드레스덴의 어느 고서점 주인인 노버트 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고서점에는 손님이 줄어들고, 인터넷으로 발생하는 경쟁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입지와 중요성을 다지고자 한다. 어느 새 쉬이 흥분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인물이 된 그가 갑자기 외국인을 살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소설은 현재 독일, 특히 동독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

가하고 있는 외국인 배척, 차별, 살인, 독일 정치인 살인과 맞닿아 있는 이 소설은 과연 평범한 독일인들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귀뜸할 듯하다.

한편, 시대에 묻혀 있던 여성 작가와 화가를 다룬 《어느 젊은 여성의 백일몽과 취기》와 《힐마 아프 클린트》(영미권/남미권 번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집, 일, 국가를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한 한 가족의 이야기인 《행성 111》, 독일의 새로운 러브 스토리라고 소개된 《알레그로 파스텔》, 흑인 어머니와 백인 유대인 아버지를 둔 17살 크리스틴이 사라진 혹은 도망간 아버지를 찾아 뉴욕으로 떠나는 여정 중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오레오》(영미권 번역)가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 정치

우리 자신이 디지털 기술의 보이지 않는 패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는 《패턴》과 함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와 그 이듬해를 비교 분석한 《1990년 발굴하기》가 수상 후보의 기회를 얻었다.

## 의학

《암을 느끼는 시간》은 사형 선고와 같았던 20세기의 암 진단에서 시작하여, 현재 암을 둘러싼 모든 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중국·동남아시아 4개 권역, 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들이 현지 출판시장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 글로벌마켓 리포트

# 프랑스

강미란(KPIPA 수출 코디네이터)

2020. 03.

종이책과 이북의 베스트셀러 리스트 작성을 분류하였다. 종이책의 경우 프랑스 전국의 대형 서점 및 체인 서점, 대형 전문매장 GSS, 중소기업 서점 및 대형 마트 GSA 및 인터넷 서점의 판매량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도가 높다고 판단된 EDISTAT의 표를 소개하였다. 이북의 경우 아마존 프랑스와 대형 도서 체인 인터넷 서점인 FNAC의 리스트를 참고하였다. 그나마 객관도가 높은 종이책 베스트셀러 리스트인 경우 20위까지를 선택하였고, 이북의 경우 각 서점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중 10위까지만을 선택하였다. EDISTAT의 2020년 2월10일~16일까지 종이책 베스트셀러 작품은 아래와 같다.

### 베스트셀러 동향

#### 종이책, 포켓판의 인기

총 20권의 베스트셀러 중 프랑스어권 도서(프랑스, 벨기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순위 1, 2, 3, 4, 6, 8, 9, 11, 12, 14, 17, 18, 20). 번역서는 망가(일본 만화) 2권을 포함해 7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작가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독자들 역시 문화 이해와 언어적 독해가 쉬운 프랑스어권 도서를 선호하는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겠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Livres de poche’ 즉 이른바 ‘포켓판’이라 불리는 판형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판형을 다른 책과 비교해봤을 때 작은 일본만화 두 권을 제외하고는 베스트셀러 리스트 중 포켓판이 7종이나 된다. 포켓판이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다.

포켓판의 인기는 일반 판형(주로 15cmx25cm 안팎)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겠다. 일반적인 관습으로 본다면 포켓판은 일반 판형으로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어느 정도

판매지수가 높을 때, 즉 일반 판형 신간이 나온 후 1.5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 출간된다. 이에 따라 신간이 인기를 끄는 경우 일부러 기다렸다가 포켓판을 사는 독자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정도 판매 부수가 높아야 포켓판으로 만든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위 표 중 Marc Levy, Maxime Chattam, Valérie Perrin, Laurent Gounelle, Lisa Gardner, Liane Morearty, Mary Higgins Clark의 작품이 올해 2월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로서의 판매 지속성도 가능해볼 수 있겠다.

2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점은 프랑스 독자들이 선호한 도서들 대부분이 소설류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 프랑스 독자 성향을 조사한 프랑스 국립도서센터 CNL(centre national de livre)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자들이 주로 읽는 책은 소설, BD(유럽식 만화), 만가와 코믹스 그리고 실용서이다. 이번 2월 베스트셀러 리스트는 이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으며, 위에 소개하지 않았으나 30-40위권의 책 역시 소설류가 대부분이었다. CNL 2019년 프랑스 도서성향 조사에서도 프랑스 독자 93% 이상이 '여가 활용, 휴식, 취미'를 위해 책을 읽고 있으며, 주로 소설 중에서도 스릴러/추리물, SF-판타지, 할리퀸 류의 장르 소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월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도 이런 경향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위에 명시된 책들 중에서도 《Au soleil redouté》, 《Le signal, L'institut》, 《Ce que savait la nuit》, 《Lumière noire》, 《A la recherche d'alice love, Dernière danse》가 스릴러/추리물로 해당 장르가 강세임을 보여주었다.

〈2020년 2월 10일 - 16일 베스트셀러 목록〉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장르
1	Au soleil redouté	Michel Bussi	Presses De La Cité	소설 (스릴러)
2	Ghost in love	Marc Levy	Pocket	소설 (로맨스) <b>포켓판</b>
3	On n'est jamais mieux soigné que par soi-même	Frédéric Saldmann	Plon	에세이
4	Miroir de nos peines	Pierre Lemaître	Albin Michel	소설 (역사)
5	Dragon ball super t.10	Akira Toriyama	Glenat	만화
6	Le signal	Maxime Chattam	Pocket	소설 (스릴러) <b>포켓판</b>
7	L'institut	Stephen King	Albin Michel	소설 (스릴러)
8	Le lambeau	Philippe Lançon	Gallimard	에세이
9	Le consentement	Vanessa Springora	Grasset et Fasquelle	자전 에세이
10	Ce que savait la nuit	Arnaldur Indridason	Points	소설 (추리)
11	Changer l'eau des fleurs	Valérie Perrin	LGF	소설 <b>포켓판</b>
12	Je te promets la liberté	Laurent Gounelle	LGF	소설 (필곳/자기계발) <b>포켓판</b>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장르
13	Lumière noire	Lisa Gardner	LGF	소설 (스릴러) 포켓판
14	Sacrées Sorcières	R.Dahl & P.Bagieu	Gallimard BD	유럽식 만화
15	A la recherche d'alice love	Liane Moriarty	LGF	소설 (심리) 포켓판
16	The promised neverland	Kiu Shirai	Kaze	만화
17	Astérix t. 38	J.Y Ferri & D. Conrad	Albert Rene	유럽식 만화
18	tous les hommes n'habitent pas le monde de la même façon	Jean-Paul Dubois	Editions de l'olivier	소설 (공쿠르상 수상작)
19	Dernière danse	Mary Higgins Clark	LGF	소설 (스릴러) 포켓판
20	La panthère des neiges	Sylvain Tesson	Gallimard	소설 (르노도상 수상작)

### 전자책, 베스트셀러 대부분이 소설

프랑스 최대 이북 플랫폼인 아마존 프랑스와 프낙의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 상위권 안의 책은 모두 소설이었다. 종류는 자전, 역사, 필굿, 칩릿, 판타지, 스릴러/추리물, LGBT 등 다양했다. 지난 2019년 프랑스 국립도서센터가 발표한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9'에 따르면 이북 사용자의 48%가 15-34세라고 한다. 특히 이 연령층은 판타지, 스릴러/추리, 로맨스, LGBT 등 다양한 장르 소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북 베스트셀러에 다양한 소설 장르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이 경향은 이번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SBN을 부여받지 않고 아마추어 작가들이 연재소설 형식으로 작품을 올리는 왓패드에서도 역시 판타지, 로맨스, 팬픽션, LGBT 류의 소설이 주를 이뤘다(2020년 2월 19일).

### 〈아마존 프랑스〉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장르
1	Soeurs	Bernard Minier	XO	소설 (스릴러)
2	Le voile de Téhéran	Parinoush Saniee	Robert Laffont	소설 (자전)
3	Je suis venue te dire	Cynthia Kafka	AE	소설 (여성)
4	Les enfants du fleuve	Lisa Wingate	Les escales	소설 (역사)
5	L'ange gardien	John Galite	KS éditions	소설 (판타지)
6	Mourir sur Seine	Michel Bussi	Editions des falaises	소설 (스릴러)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장르
7	Sixtine	Caroline Vermalle	North wharf	소설 (판타지, 추리, 스릴러)
8	Harry Potter 1	JK Rowling	Pottermore	소설 (판타지)
9	Le bonheur n'a pas de rides	Anne-Gaëlle Huon	Le livre de poche	소설 (필굿)
10	La vie rêvée des chaussettes orphelines	Marie Vareille	Charleston	소설 (로맨스, 필굿)

### 〈FNAC〉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장르
1	Les ronces	Faith Kean	MxM bookmark	소설
2	Au soleil redouté	Michel Bussi	Presses de la Cité	소설 (스릴러)
3	Résolu	Blake Pierce	AE	소설 (스릴러)
4	Miroir de nos peines	Pierre Lemaître	Albin Michel	소설 (역사)
5	Les jeux de Rome	JP. Kenwood	Juno Pub.	소설 (LGBT)
6	Le secret du mari	Liane Moriarty	Albin Michel	소설 (스릴러, 추리)
7	Mon plus beau cadeau	LN Nikita	Juno Pub.	소설 (LGBT)
8	J'ai dû rêver trop fort	Michel Bussi	Presses de la Cité	소설 (스릴러, 추리)
9	Larme de lune	Félie Bertin	Mix Editions	소설 (판타지)
10	Un désir invisible	KJ Charles	Reines-Beaux	소설 (역사)

## 2월 신간 동향

2020년 2월에는 총 631권의 책이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이 중 포켓판은 167권에 해당하고 일반 판형인 경우는 316권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CNL 보고서 내용 중 여가 독서 3위를 차지한 장르가 만화, 코믹스였다.

이를 입증하듯 올 2월에 출간된 만화(작은 판형의 일본 망가식 만화) 수가 161권에 달한다. 일본식 만화의 경우 모두가 일본 망가를 번역한 것은 아니다. 일본식 만화 형식을 빌려 책을 내는 경우도 많다. 올 2월 출간되는 Bandes dessinées 혹은 BD, 즉 유럽식 만화는 9권에 달한다.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중국·동남아시아 4개 권역, 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들이 현지 출판시장 정보를 매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

글로벌마켓 리포트

# 중국 베이징

배혜은(KPIPA 수출 코디네이터)

2020. 03.

## 2019년 중국 출판업계 특징 종합

### 1. 2019년 중국 출판업계 주요 특징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시진핑 주석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시진핑 주석의 주요 어록 및 강연을 책 주제로 활용하는 등, 신 중국 성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중화인민공화국대사건(中华人民共和国大事记)>, <신중국70주년(新中国70年)>, <중국을 보는 방법(如何看中国)> 등의 책 역시 활발하게 출간되었다.

또한 출판업계 질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출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의 <출판 업무 강화 및 수정 업무에 관한 의견>이 실행되었으며, 전 국민 독서 습관 기르기 프로젝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출판업계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출판한 책의 내용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 출판 업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기로 진입한 것을 보여준다. 출판물에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며, 중국 국가신문출판부는 문학 및 예술, 교육 및 지식 보급 서적의 내용의 질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 소도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 서점 및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 교육부에서는 모든 대학교는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오프라인 서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강의 교재 및 다양한 분야의 책을 구비한 오프라인 서점이 많이 등장하였다.

80여 곳의 국가와 '일대일로' 관련 도서, 전자책, 인터넷 문학 분야의 수출입 계약을 맺었으며 특히 인도, 미얀마,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케냐 등 다양한 국가들과 출판 관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 인기 영상 작품으로 인해 원작 소설 주목

아마존 차이나는 최근 2019년도 킨들(Kindle) 차트를 발표하고 지난 1년간의 전자책 독서 추세를 분석했다. 킨들 전자책의 판매 총량을 보면, 《삼체전집(三体全集)》, 《장안십이시진(长安十二时辰)》과 《명나라 그 일(明朝那些事儿)》이 중국 독자들의 인기를 끌며 '2019 아마존 차이나 킨들 유료 전자책 베스트셀러' 상위 3위에 올랐다. '2019 아마존 차이나 킨들 유료 전자책 신간 목록'에는 《다 잘될 거야(都挺好)》, 《미국 함정(美国陷阱)》, 그리고 《현미경 아래의 대명(显微镜下的大明)》이 각각 순서대로 상위 3등을 차지했다. 도시별로 보면 북경, 상해 그리고 심천이 킨들 전자책 구매 순위 및 1인당 킨들 전자책 구매 순위에서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 아마존 차이나 킨들 유료 전자책 베스트셀러' 10위 안에는 류츠신(刘慈欣)의 《삼체전집》과 《유량지구-단편선(流浪地球)》이 각각 1위, 5위에 올랐다. 특히 《유량지구》는 2019년 초 동명 영화로 개봉된 바 있는데, 2019년 기준 흥행수입 약 46억 위안(한화 약 7,845억 원)으로 중국의 자체 제작 SF 영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소설 원작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소설 《삼체》는 재흥행의 역사를 썼다. 마오옌영화(猫眼电影)에 따르면, 〈유량지구〉 영화 상영 3일 만에, 동명 소설 판매량이 3만 권이 넘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SF 열풍이 불었으며 같은 장르 영화인 《상해보루(上海堡垒)》, 《척성자(拓星者)》 등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마보용(马伯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 〈장안십이시진〉과 아나이(阿耐)의 원작 소설 《다 잘될 거야(都挺好)》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역시 출판계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국 작가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역시 여성을 주목한 작품으로 '2019 아마존 차이나 킨들 신간 명단'에서 5위를 차지했다.

## 2020년 중국출판시장 발전 추세 예측

### 1. 2019년에 이어 2020년 중국 출판시장 역시 '주제별 출판'이 핵심

정책의 영향 아래 내용이 검증된 정치 관련 서적의 발전이 주를 이루었다. 《시진핑이 말하는 국가 정치》, 《시진핑이 들려주는 이야기》 등 국가 및 정치와 관련된 책이 2020년에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며 특히 국가의 업적을 다루는 내용의 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및 정치적인 주제 외에도 중국의 우수한 문화 및 현실 소재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출판물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직된 출판업계 분위기를 없애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 과학, 문화, 경제를 주제로 한 책이 출판될 것으로 예측되며, 출판업계 역시 전통적인 방법보다 많은 대중에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서비스(라디오 중심, 대표적으로 히말라야FM(喜马拉雅FM), 논리사유(逻辑思维) 등 플랫폼이 있음)를 보급하며 중국의 문화 및 역사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 2. 국민들의 주제별 독서 습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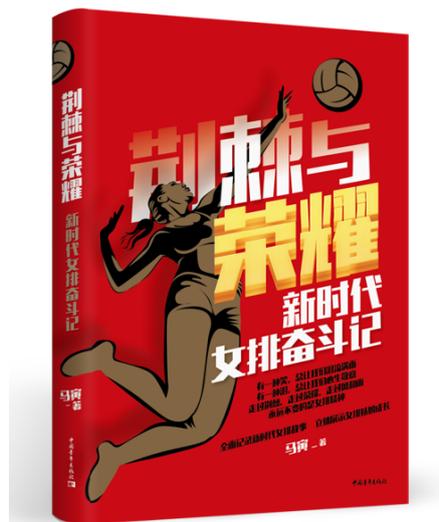
‘주제별 출판’이라는 큰 사회적 영향을 받아 독자들 역시 주제별 독서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영역별 학문 관련 도서가 흥행이다. 국가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 즉 문화, 역사, 유적지 및 사회적인 사건 등과 관련한 포럼, 세미나, 참여형 공간을 만들고, 출판계에서는 독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책의 내용을 심도 깊게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좋은 책(中国好书)”, “서향 장수성(书香江苏省)”, “서향 룡장성(书香龙江省)” 등 다양한 공식 계정이 웨이신, 웨이보,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되고 있다. 〈나와 나의 조국(我与我的祖国)〉, 〈대강대하(大江大河)〉 등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상 및 영화 역시 관련 책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의 출판 산업시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여성’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 주목받아

2020년 1월 17일, ‘여자 배구 정신, 새로운 시대의 노력형 인간’을 주제로 한 《고난과 영광-새로운 시대, 여자 배구의 고군분투(荆棘与荣耀——新时代女排奋斗记)》 신간 발표회가 중국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본 출판 기념회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선전부, 중국청년출판사, 중국청년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배구 전문 취재 기자인 마인(马寅)이 2003년부터 중국 여자 배구의 성장기를 봐오며 느낀 점을 《고난과 영광》에 담아냈으며, 청소년 필독 도서로 꼽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여자 배구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는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주체성’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화제의 신간 《고난과 영광》

〈2020년 1월 중국 당당왕(当当网) 베스트셀러〉

순위	도서명	저자	출간연도	출판사	분야
1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2019.11월	남해출판사(南海出版公司)	소설
2	곰돌이와 제일 좋은 아빠(小熊和最好的爸爸)	알란도 담	2007.11월	귀주인민출판사(贵州人民出版社)	동화
3	딩샹 의사 선생님의 건강 달력 2020(丁香医生健康日历2020)	딩샹 의사(丁香医生)	2019.8월	중국경공업출판사(中国轻工业出版社)	건강/의학
4	소년을 위한 〈사기〉 읽기(少年读史记) 전권 5권 세트	장자화(张嘉骅)	2015.9월	청도출판사(青岛出版社)	아동 문학
5	인간 실격 (人间失格)	다자이 오사무	2015.8월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	소설
6	신기한 스쿨버스 20권 세트	조애너 콜	2014.4월	귀주인민출판사(贵州人民出版社)	동화
7	백년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2017.8월	남해출판사(南海出版公司)	소설
8	인생 (活着:2017년 출판 버전)	위화(余华)	2012.8월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	소설
9	긍정적 훈육	제인 넬슨	2016.7월	북경연합출판사(北京联合出版公司)	교육
10	평범한 세계 (平凡的世界) 3권 세트	루야오(路遥)	2017.6월	북경시월문예출판사(北京十月文艺出版社)	소설

1월 당당왕 기준 베스트셀러의 출간 연도는 이르게는 2007년부터 최근 출간된 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상위 10권 중 외국 작가의 책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중국 작가들의 책을 위주로 출판하던 중국 출판 시장이 외국 서적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장르별로는 소설이 50%를 차지하며, 아동 및 교육 분야는 중국 출판 시장에서 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0년 1월 당당왕(当当网) 기준 신간 도서 판매 순위〉

순위	도서명	저자	출간연도	출판사	분야
1	변량: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조종판(变量:推演中国经济基本盘)	허판(何帆)	2020.1월	중신출판사(中信出版社)	경영
2	소년 시절의 너(少年的你)	소년(少年)	2020.1월	북경연합출판사(北京联合出版公司)	소설
3	지평선을 넘어(穿过地平线)	리스광(李四光)	2019.12월	남방출판사(南方出版社)	교육 보조 교재
4	중국 가정의 재테크 방법 (钱从哪里来:中国家庭的财富方案)	상슈아이(香帅)	2020.1월	중신출판사(中信出版社)	경영

순위	도서명	저자	출간연도	출판사	분야
5	경여년: 북쪽 바다의 안개 (庆余年·北海有雾)	묘니(猫腻)	2019.12월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学出版社)	소설
6	경여년: 도읍에서 (庆余年·人在京都)	묘니(猫腻)	2019.12월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学出版社)	소설
7	경여년: 먼 곳에서 온 손님 (庆余年·远来是客)	묘니(猫腻)	2019.12월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学出版社)	소설
8	도묘필기 십년 (盗墓笔记十年)	남파삼숙(南派三叔)	2019.12월	북경연합출판사(北京联合出版公司)	소설
9	아이들을 위한 종의 기원	찰스 다윈	2019.12월	허남문예출판사(河南文艺出版社)	아동
10	예쁘지 않아 참 다행이네요(幸好不漂亮)	샤오추어(萧卓)	2020.1월	민주와건설출판사(民主与建设出版社)	자기계발

1월 당당왕 신간 베스트셀러로는 경영 및 경제 분야 서적 《변량: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4위에 꼽힌 《중국 가정의 채테크 방법》과 함께 중국 대표 지식 콘텐츠 플랫폼인 논리사유의 인플루언서 뤼쯔위(罗振宇)가 2020년 신년 강의에서 추천한 책이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서 프로그램이나 라디오에서 유명인이 추천한 책을 구독자들이 따라서 구매하고 읽는 행위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2위를 차지한 《소년 시절의 너》는 2019년 10월 25일, 청귀상(曾国祥) 감독이 영화로 리메이크하여 중국에서 흥행 수입 15.58억 위안(한화 약 2,655억 원)을 기록하며 중국 청춘영화의 대표가 되었다. 영화가 흥행하자 2020년 1월 1일, 기존의 책 디자인을 바꾸고 영화 스틸컷 기념 엽서를 사은품으로 주는 새로운 에디션을 내놓았다. 에디션 버전에는 영화에 나온 화면을 소설 내용과 나란히 싣거나, 종이 질감을 독특하게 하여 독자들의 소장 가치 욕구를 자극했다.



(좌) 지식 공유 플랫폼 논리사유의 인플루언서 뤼쯔위(罗振宇)  
(우) 2020년 1월 당당왕(当当网) 기준 신간 도서 1위 《변량》



(좌)기존의 《소년 시절의 너》 (우)새로운 에디션의 《소년 시절의 너》

순하오(孙皓) 감독이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리메이크한 판타지 사극 <경여년(庆余年)>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중국 인터넷 대표 플랫폼 텐센트TV(腾讯视频)와 아이치이(爱奇艺)에서 방송되었다. 장뤄원(张若昀), 리친(李沁), 천다오밍(陈道明) 등 중국 유명 배우들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소설 시리즈가 순서대로 2020년 신간 베스트셀러 5, 6, 7위를 차지했으며, 이 소설 역시 책을 구매하면 드라마 스틸컷 기념 엽서나 포스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여년》 1, 2, 3권과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드라마 기념 엽서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중국·동남아시아 4개 권역, 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들이 현지 출판시장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글로벌마켓 리포트

# 인도네시아

배동선(KPIPA 수출 코디네이터)

2020. 03.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인도네시아 출판시장 관련 주요 기사들을 통해 도서 행사와 시장 동향 및 추이를 파악했다. 인도네시아 주요 출판사들 중 매달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하는 그라메디아의 최근 수개월간의 베스트셀러들을 비교하여 독자의 취향과 관심사 및 경향을 토대로, 수출된 한국 서적들의 위상을 따라가 보았고, 그 가운데 2019년 하반기부터 선전한 《82년생 김지영》의 번역본을 비롯한 한국 번역 작품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 보았다.

## 2019년 10월-2020년 1월 베스트셀러

### 그라메디아의 최근 4개월간 베스트셀러 비교

순위	2019년 10월	2019년 11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1	Kim Ji Yougn, Lahir Tahun 1982 (조남주)	Kim Ji Yougn, Lahir Tahun 1982 (조남주)	Perkardia (Dr. Gia Pratama)	Perjamuan Khong Guan (Joko Punurbo)
2	Belahan Jamtungku (Andien Aisyah)	Dia adalah kakakku (Tere Liye)	Kim Ji Yougn, Lahir Tahun 1982 (조남주)	Jika kita tak pernah jadi apa-apa (Alvi Syahrin)
3	Saya Pamit (Ria Ricis)	Yang Diacak-Acak Seprai, Yang Berantakan Hati (Faizal Reza)	More of You (Acha Sinaga & Andy Ambarita)	Kamu Terlalu Banyak Bicara (Marchella FP)
4	I want to Die but I want to Eat Tteokpokki (백세희)	I want to Die but I want to Eat Tteokpokki (백세희)	Jika kita tak pernah jadi apa-apa (Alvi Syahrin)	Guru Aini (Andrea Hirata)

순위	2019년 10월	2019년 11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5	Menjejak Andalusia (Ibrahim Kholilul Rohman)	Loving the wounded Soul (Regis Machdy)	Tapak Jejak (Fiersa Besari)	Generasi Kembali ke Akar (Dr.Muhammad Faisal)
6	Ilmu Sahan (Belvin Tannadi)	Let It Snow (Maureen Johnson)	Anak Semua Bangsa (Pramoedua Ananta Toer)	Sunny Everywhere (Sunny Dahya)
7	Membangkit Bayang-Bayang (Sutarto Hadi)	Berani Tidak Disukai (Ichiro Kishim & fumitake Koga)	Imperfect (Meira Anastasia)	Atomic Habits (James Clear)
8	The Naked Nikita: Rahasia Yang Beum Terungkap (Nikita Mirzani)	Quarter-life Crisis (Gerhana Nurhayati Putri)	Off The Record 2 (Ria SW)	Techno Preneurship (Eko Suhartanto, Ary Setijadi)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3개월간 그래메디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머물렀고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도 2개월간 상위권을 지켰다.

## 신간 및 이슈

그래메디아의 계열사인 KPG(Kepustakaan Populer Gramedia) 기준 2월 19일 현재 판매 순위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순위	도서명	작가명
1	NANTI KITA CERITA TENTANG HARI INI (NKCTHI)	Adham T. Fusama
2	SAPIENS	Yuval Noah Harri
3	THE POWER OF HABIT	Charles Duhigg
4	NANTI KITA CERITA TENTANG HARI INI (TAMBAHAN PESAN PAGI)	Adham T. Fusama
5	NOT SO SILLY JOURNAL	Naela Ali
6	LAUT BER CERITA	Leila S. Chudori)
7	KONSER DONGENG NAURA	Naura
8	SELF-ACCEPTANCE BY #88LOVELIFE	Diana Rikasari
9	PERAWAN REMAJA DALAM CENGKERAMAN MILITER	Pramoedya Ananta Toer
10	KOSMOS	Carl Sagan

## 한국 작품의 번역 진출

인도네시아 도서 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 작품 번역본들이 들어와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만화로, 그라메디아 서점에 깔린 전체 교육 만화의 최소 10% 정도는 한국 원작인 듯하다.

한국 시집도 여러 권 번역 출간되었는데 공광규 시인의 시집 《햇살의 말씀》이 《Pesan dari Mentari》로 번역되어 지난 10월 그라신도(Grasindo)에서 출간되었고 최준 시인의 시집 《아자수 성자》가 11월 그라메디아에서 《Orang Suci, Pohon Kelapa》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보다 훨씬 앞서 2018년 3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의 신영덕 교수와 넨덴 릴리스(Nenden Lilis) 교수가 번역하여 《Langit, Angin, Bintang dan Puisi》라는 제목으로 부스타카 오보르(Pustaka Obor)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이외에도 한국 시집들은 이미 여러 권이 번역되어 현지에 소개된 바 있다.

한국 라노벨도 수년 전부터 상당수의 번역본이 현지 서점에 비치되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3월의 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음의 한국 소설 번역서를 소개했다.

- 《Sung Kyun Kwan Scandal(성균관 스캔들)》 by 정은결
- 《Angel of Morning Star Club(셋별클럽의 천사들)》 by 임세혁
- 《To You(너에게)》 by 하태완
- 《Who Are You?(후아유)》 by 임은희
- 《Crying Doesn't Change a Thing(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by 박준

앞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본 바와 같이 《82년생 김지영》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작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도서 시장에서 분명 이전과는 사뭇 다른 파괴력을 발휘했다. 인도네시아에 보편화된 한류와 한글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적 감성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더욱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 2020년 1월-2월에 상영되는 영화화 서적들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은 2016년 해외 자본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연간 제작편수는 늘어났지만 수준 높은 영화 인력의 확보는 늦어지는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역량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이 불분명한 리스크를 안고 거대 자본을 투입하여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유명 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음은 올해 1월-2월 사이 개봉하였거나 개봉 예정인 원작 소설 기반의 영화들이다.

### NKCTHI

마르첼라 FP(Marchella FP)의 작품 《Nanti Kita Cerita Tentang Hari Ini(오늘에 대해 우리 나중에 얘기해)》의 이니셜을 딴 제목. 1월 2일 개봉

### Surat dari Kematian(사자의 편지)

아드함 T 푸사마(Adham T. Fusama)의 작품. 호러. 1월 9일 개봉

### Dignitate(디그니테이트)

하나 마르가레타(Hana Margaretha)의 작품. 1월 23일 개봉

### Milea

Suara dari Dilan(밀레아: 딜란의 목소리): 2018년과 2019년 각각 빅 히트한 영화 <Dilan 1990>, <Dilan 1991>의 후속작. 2월 13일 개봉

## 인도네시아 출판시장 주요 기사

### 엘렉 미디어(Elex Media), 서적 할인 판매와 만화책 매출 감소

Quanta, Quanta Kidz, Elex Kidz, Oopredoo, YOI Books, Level Comics, City Lite, Le Marriage, Laiqa, Lit 등 다양한 브랜드의 아동 도서와 번역 만화를 주로 출판하고 저작권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엘렉 미디어 콤포넨도(PT. Elex Media Komputind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전국 그라메디아(Gramedia) 서점 체인 매장에서 2020년 1월 12일-31일 동안 '값진 여행(Priceless Journey)'이라는 테마를 갖고, 최대 30% 할인 판매 행사를 가졌다. (일간콤빠스 1월 14일자)

앞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 엘렉 미디어의 이다 바구스 까데 슈만자야(Ida Bagus Kade Syumanjaya) 사장은 2020년 1월 20일 수아라닷컴(suara.com)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이후 만화책 출판량이 꾸준한 감소를 겪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여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디지털 플랫폼이 종이책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설, 동기부여 서적, 화려한 색상의 그림들이 들어간 아동 서적들이 여전히 대량 인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종이 만화책 출판은 감소한 대신 디지털 만화 출판은 증가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출판 부분에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독자들의 독서 욕구를 말살한 것이 아니라 관심 분야가 다른 장르로 옮겨간 것이라 판단하므로 엘렉 미디어는 현재 판매 증가 추세에 있는 소설, 동기부여, 힐링, 정신적 회복 테마를 올해 방향으로 잡았다.

### 이북의 약진

콘텐츠 제작자들의 신문, 크래프터스(Crafters)의 1월 23일 기사에서는 현재 태동기를 거쳐 점차 눈에 띄게 활동하는 이북 메이커 5개사를 소개했다.

### 그라메디아나(Gramediana)

콤빠스 그라메디아 페어 2013을 통해 소개된 이북 출판사. 프린트온디맨드(Print on Demand) 테크놀로지를 통해 소량 종이책도 출간이 가능하다.

### 딥퍼블리시(Deeppublish)

모든 작가들의 종이책 또는 이북의 자가 출판을 돕는다.

### 큐바짜(Qbaca)

국영 통신업체인 텔콤(Telcom)이 운영하는 디지털 서점. 제휴된 출판사와 작가들을 연계해 이북 출판을 돕는다.

### 까리야 버추얼(Karya Virtual)

어떤 형태의 이북이든 제작이 가능하다.

### 와양포스(WayangForce)

이북 출판 및 독서 플랫폼

## 이슬람 북페어 2020(Islamic Book Fair 2020)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2월 26일부터 이슬람 북페어 2020이 개최됐다. 전시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주로 이슬람 서적들이 전시되며 관련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이슬람 책자는 인도네시아 대형 출판사들도 대부분 출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페어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사업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올해 한세에스24문화재단에서는 고전 소설 《반더웨익호의 침몰(Tenggelamnya Kapal van der Weijk)》의 한국어 번역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출판사 제마 인사니(Gema Insani)는 이 북페어에서 해당 도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영문 번역본 출간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판사들과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중국·동남아시아 4개 권역, 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들이 현지 출판시장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 출판N Vol.8 2020.03

발행인 김수영

편집인 김영진

편집위원 백원근 이명석 이영미

기획/편집 정책연구통계센터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486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063)219-2700

홈페이지 <http://www.kpipa.or.kr>

웹진페이지 <http://nzine.kpipa.or.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구독신청/문의 정책연구통계센터(063-219-2724)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